

국통조 88-1-4

日本共産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和田正名
日本共産黨國際部副部長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本 책자는 日本共產黨中央委 國際部副部長으로 있는 和田正名씨가 日本共產黨 기관지인 『赤旗』 1986년 11월 2일자와 11월 9일자의 評論特集版에 2회에 걸쳐 “日朝友好運動のかく亂者”라는 제목과 “70年代からの 朝鮮勞動黨の干渉と盲從分子の策動の軌跡”이라는 副題로 연재한 論문을 번역 수록한 것입니다.

本 論문은 北韓勞動黨의 金日成 개인숭배 및 日本內 좌익운동에 대한 간섭과 金日成 주체사상의 강요라는 政策路線에 대해 이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이념에 벗어난 것이며 他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暴舉的인 것으로 규정한 日本共產黨의 北韓勞動黨에 대한 批判的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1988. 1.

調査研究室長
崔 文 鉉

目 次

I. 序	5
II. 7·4南北共同聲明 支持強要와 干涉策動	15
1. 金日成에의 贈物運動의 大規模的 強要	15
2. 聲明支持를 결정하지 않았던 協會에 대한 報復	22
3. 自國의 政策에의 絶對同調를 요구하는 霸權主義	28
III. 7·4南北共同聲明과 統一問題에 있어서 北朝鮮의 立場	33
1. 美帝의 ‘白旗’ 降服論과 7·4南北共同聲明	35
2. 또다시 對話拒否, 그리고 3者會談까지	45
IV. 日朝友好運動에 대한 계통적인 干涉策動	53
1. 金日成에 대한 誓約과 分裂組織의 設立	54
2. 自主性이 결여된 朝鮮統一支持集會	65
3. ‘金日成主義’의 強要策動	70
V. 反核, 平和的·民主的 勞動運動에 대적하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	81
1. 核戰爭 沮止와 核武器 廢棄를 永遠의 彼岸으로	81
2. 파탄된 ‘自主化’論과 右傾化에 迎合	87
3. 干涉의 道具로서의 金日成主義 信奉者集團	92
VI. 참된 日朝友好運動의 立場을 견지하며	99

I. 序

1985년 11월, 日本共產黨은 제17차대회 결의를 통해

霸權主義는 社會主義의 大國에서만 나타나는 逸脫이 아니다.

라고 주장, 朝鮮勞動黨의 霸權主義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軍事境界線”과 日本 漁船 총격사건 등의 문제에서 科學的 社會主義의 도리도 국제법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저들의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 黨에 부당한 공격을 가해온 朝鮮勞動黨의 태도는 霸權主義의 하나의 야만적인 모델이다. 또 우리 黨은 自國의 지도자의 이름을 앞세운 ‘主義’나 ‘思想’을 세계적인 指導思想이라고 예찬하면서 여러가지 追從組織들을 양성하여 그것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霸權主義的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대하여 朝鮮勞動黨은 1986년 3월에 창간한 잡지 『國際生活』의 논문에서, 日本共產黨의 비판에는 반론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압적으로 日本共產黨의 對内外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과 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나아가서는 공공연히 國際

6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共產黨 지도부의 타도까지 제기함으로써 그 야만적인 霸權主義를 한층 더 확산시켰다.

日本共產黨은 1986년 6월 29일자 『赤旗』의 無記名論文 “야만적인 霸權主義 전형의 새로운 照明——朝鮮勞動黨의 『國際生活』誌論文이 보여주는 것”에서 이에 대해 철저한 反論을 가하였다. 이 論文에서

朝鮮勞動黨은 1970년대부터 “金日成主義” 信棒者들의 反共·反革新의 책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지하여 日本의 革命運動과 民主運動에 간섭해 왔으며〔朝總聯은〕 이전부터도 金日成 생일에 대한 선물 보내기 운동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外交政策에 대한 支持運動을 日本의 民主運動에 접합시켜 왔다.

고 말하여 그들의 日本에 대한 霸權主義的 간섭이 日本共產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日本의 민주 운동에 대한 더구나 장기에 걸친 조직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 이 論文은 霸權主義가 金日成을 “世界의 뛰어난 革命指導者”니 하여 치켜세우는 自我陶醉에 根源을 둔 아주 뿌리깊은 것이라는 것도 밝혔다.

日本共產黨 제18차대회 결의안은 朝鮮勞動黨의 이러한 霸權主義와의 투쟁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日本共產黨과 朝鮮勞動黨의 논쟁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된 것은 1983년에 朝鮮勞動黨측에서 日本共產黨을 공공연히 공격하기 시작한 데서부터이다. 同年 10월 랑군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버마당국의 판단과 랑군 법정의 판결이 있었지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의 報道와 朝總聯 산하의 『朝鮮時報』의 주장들은 이런 것들을 全斗煥의 “自作自演”이니 “테마” 또는 “웃기는 소리”라

고 받아 넘겼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日本共産黨의 태도에 대해 朝總聯의 『朝鮮時報』는 “反動派의 謀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日本共産黨은 이와 같은 중상적인 비방에 대하여 당연히 반격하였다.

그 후에도 1984년 7월에 일어난 第36八千代(야찌요)호 총격 사건에서도 국제법상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軍事境界線에 들어왔다 하여, 즉각 총격을 가하여 함장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도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연한 日本共産黨의 견해에 대하여 朝鮮勞動黨은 “부당한 트집”이니 “內政干涉”이니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하여 日本共産黨을 중상하기에 이르렀다.

航行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할 넓은 海域을, 국제법에서도 인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軍事境界水域” 따위의 자의적인 테두리를 설정하여 거기에 들어왔다 하여 무력으로 공격하는 前近代的·霸權主義의 태도로 나오는 朝鮮勞動黨에 대하여 日本共産黨이 반격을 가한 것은 당연하다.

실은 朝鮮勞動黨이 日本의 革命運動이나 民主運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國際生活』에 반론한 바 있는 1986년의 日本共産黨의 논문이 언급하였듯이 朝鮮勞動黨의 간섭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日本共産黨은 당시부터 이러한 간섭들에 따르는 잘못된 경향에 대하여 적절하게 그때 그때 존엄한 비판을 가해 왔었다. 그러나 朝鮮勞動黨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름을 거론해서 朝鮮勞動黨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삼가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서 1970년대 초부터 朝鮮勞動黨측으로부터의 간섭 사실들이 반드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오늘의 日朝 양 黨과 日朝 양 國의 友好團體들간의 단절 관계를 발생시킨 원인이 朝鮮勞動黨側

8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의 부당한 간섭만이 아니고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민주세력들측에도 있는 것같은 오해가 일부에 있어, 이 때문에 朝鮮勞動黨의 패권주의적 간섭과의 투쟁에 중립적·방관적으로 처신하려는 경향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민주세력의 일부에는 朝鮮勞動黨의 간섭을 黨과 黨 사이의 문제이지 민주 운동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향과, 朝鮮勞動黨의 간섭에 추종하는 金日成主義 신봉자들의 책동을 “미친 짓”이라고 일축할 뿐, 무시하여 내버려 두어도 별 영향은 없다 하여 사실상 이와 투쟁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도 보였다.

日本共產黨 제17차 대회에 대한 中央委員會 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霸權主義의 여러가지의 경향이 社會主義 사업의 道義的 威信에 근본적으로 害를 끼침으로써 反共·反社會主義의 캠페인에 絶好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현재, 팔짱을 낀 채 사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霸權主義에 반대하고 이를 극복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 그리고 日本의 광범한 대중과의 사이에서 그것이 科學的 社會主義의 정신으로부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逸脫이라는 것,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社會主義 본래의 역사적 사명에서 보아 당연한 방향이며, 日本共產黨은 그를 위한 비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명함으로써만 社會 進出의 사업에 많은 勞動者들을 끌어들이는 도리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1970년대 초부터의 朝鮮勞動黨에 의한 日本의 革命運動·民主運動·朝日友好運動에 대한 계통적인 霸權主義的 간섭과 그 추종자들의 책동 및 事實 경위와 그 본질을 오늘

의 時點에서 다시 한번 밝혀두는 것은 日本 人민의 運動의 自主性을 수호하고 社會主義의 大義를 지키기 위하여, 또 누가 日朝友好의 파괴자이며 누가 참된 日朝友好의 수호자이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 本稿의 의도하는 바인 것이다.

나중에 상세히 보게 되겠지만, 1971년 후반부터 朝鮮勞動黨은 朝總聯 등을 통하여 金日成의 還甲祝賀와 그들이 外交政策의 지지를 日本의 民主勢力과 각계 人士에게 강요해 왔다. 그때 日本 共產黨은 1972년 3월 11일에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올바른 發展을 위하여”라는 論文을 『赤旗』誌에 발표하여 이 강요에 추종하는 것은 참된 友好·連帶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하였다. 또 1978년 11월 東京에서 열린 “朝鮮의 統一을 위한 第2次世界會議”에서 보여준 總評 등의 영합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을 가하여 會議의 自主性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였던 것이다. 『前衛』 1979년 9월호에는 不破哲三 서기국장(당시)이 同年 6월에 全國地區委員長 학습회의에서 “自主의 會” 등을 자칭하고 있는 對外追從集團들의 책동을 日本革命의 자주성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공격이라 하여 준엄하게 비판한 내용이 공표되었다.

1983년의 아웅산 사건과 다음해인 1984년의 “軍事境界線”에서의 日本 어선 총격 사건에 즈음하여 朝鮮勞動黨측이 행한 부당하고 야만적인 공격에 대하여, 日本 共產黨은 一連의 논문을 통하여 공공연히 반론을 펴고, 다시 1986년의 朝鮮勞動黨의 『國際生活』誌의 日本 共產黨에 대한 간섭과 공격의 확대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격한 것도 이미 말한 바와 같다.

金日成主義를 日本革命의 유일한 지도 사상이라 하여 朝鮮勞動黨의 노선을 日本에 끌어들이는 對外 맹종집단들인 ‘日本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反共·反革新의 策動에 대하여, 그리고 다

음해인 1984년 8월에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正體의 自己暴露—새로운 反共論文이 보여준 것”에서 비판을 가하고 이와 아울러 그들이 신봉하는 ‘金日成主義’와 ‘主體思想’이라는 것들의 관념론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고 또 金日成이 日本社會黨 등을 통하여 日本에 ‘日本의 自主化’라는 독특한 노선을 강요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의 反共·右傾化 노선에의 연합을 강화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1985년 11월 18일자 『赤旗』의 評論特輯版 所載의 拙稿로 비판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朝鮮으로부터의 패권주의적 간섭에 대한 투쟁은 사실상이미 15년을 경과했으며, 그동안에 발표된 관계 문헌들을 수록한 책자 「國際友好·連帶運動과 霸權主義—日朝關係를 둘러 싸고」가 1987년 4월 黨의 出版局에서 간행되었다.

朝鮮勞動黨의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민주 운동에 대한 霸權主義的 간섭과 함께 이에 추종·호응하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反共·反革新의 策動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日本 金日成主義 研究會”의 常任幹事長인 ‘尾上健一’은 朝鮮勞動黨에 맹종하여 ‘金日成主義’를 日本 혁명의 지도 사상이라 하여 이에 동조하지 않는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혁신 운동에 대한 계통적인 공격 책동의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의 한 사람이며, 금년 초에 두 번이나 [北]朝鮮을 방문하였다. 1월 21일에는 金日成과 만나 그 사진이 朝鮮勞動黨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1면 톱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그 후 尾上(오가미)는 金日成 75세 생일 祝賀行事에도 초대되었다.

『로동신문』으로부터 늘 평가와 격려를 받아 反共·反革新과 對外 맹종의 論調를 싣고 있는 ‘尾上’ 일파의 기관지인 『金日成主義 研究』와 『自主의 길』은 金日成의 “日本은 자주화되어야 한

다.”라는 간접적인 발언에 迎습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自由의 길』 1986년 11월호의 논문은

세계에서 執權黨이 아닌 자칭 마르크스主義 政黨이나 勞動者 階級の 政黨이 國民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투쟁을 전진시키고 있다는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새로운 運動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大石 新, “日本을 자주 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運動”).

라고 하면서 日本共產黨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科學的 社會主義의 黨의 運動은 모두가 “낡은 運動”이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약하고, 金日成主義運動이야말로 그에 대신할 “새로운 運動”이라고 말하고 있다. 朝鮮勞動黨은 『國際生活』誌에서 日本共產黨 指導部の 타도를 공공연히 부르짖었는데, 이 논문은 이에 호응하여 日本共產黨에 대신할 “새로운 運動”을 주장할 것을 의도한 것이었다. 朝鮮勞動黨의 간섭에의 추종자들은 自國 國民의 自主性を 견지하여 日朝友好運動을 추진하고 있는 日朝協會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였다.

1986년 12월 17일 埼玉(사이따마)縣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추진해 온 일부 分子들은 縣下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과 함께 浦和(우라와)市에서 “日朝協會와 결별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호소하는 ‘集會’를 열었다. 이 집회의 日朝協會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과 그 분열·해체의 외침은 日朝協會 埼玉聯合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日朝協會 中央을 비롯한 협회 전체에 집중되었다. 집회가 채택한 ‘어필’은 1972년에 南北朝鮮의 양 當局이 발표하면서 朝總聯이 日本의 민

주 세력들에 대하여 지지 운동을 요청했던 7·4共同聲明에 대하여 그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던 사실로부터 日朝協會가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日朝友好的의 기준을 日本측의 自主性を 무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않느냐, 朝總聯의 요청에 응하느냐 않느냐에 두고서 日朝協會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 浦和市에서의 집회는 50명도 못되는 조그마한 것이었으나 朝總聯의 縣本部委員長이 참석하여 격려의 말을 보내었다. 이 집회에 대해서는 『朝日新聞』의 지방판에서도 조그하게 보도되었으나 浦和市の 社會黨의 선전물에서는 크게 선전되었다.

日朝協會의 본부와 埼玉縣連은 1986년 12월의 埼玉縣에서의 朝鮮追從分子들의 이러한 새로운 공격에 대하여 사실과 도리에 입각하여 반격하였다. 日朝協會 埼玉縣連은 1972년에 朝總聯으로부터 7·4共同聲明의 지지가 강요되었을 때 이에 영합하여, 협회를 聲明 支持派와 不支持派로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전국의 협회와 함께 운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지하는 派도, 지지하지 않는 派도 다함께 단결하여 南北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과 日韓條約 반대 등 여러 과제의 쟁취를 광범한 日本 國民 속에서 발전시킨다는 길을 택한 것이다. 策動者들의 공격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縣連이 변질했다는 따위의 中傷을 외부로부터 가하는 것이었다. 변질한 것은 7·4共同聲明 지지의 강요에 영합하며, 본래 日本 國民의 자주적 운동체로서 발전해 온 日朝協會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정책에 영합하는 운동체로 변질시키고자 날뛰는 策動者들 측이었다. 日朝協會도 이와 같은 책동을 분쇄하고 자주적·민주적 입장에 서는 참된 友好·連帶의 깃발을 더욱 높이 치켜들고 전진할 것을 성명하였다.

埼玉縣에서의 日朝協會 파괴의 책동자들은 그 후 7·4共同聲明

의 15주년을 기하여 1987년 7월 4일에 “日朝友好連帶 埼玉縣民會議”의 ‘結成總會’라는 것을 열었는데, 그 내용은 縣下의 종래의〔北〕朝鮮追從分子들의 再結集 이상의 것은 아니었으나, 採擇文書에서는 日朝協會에 대한 舉名攻撃이 사라지는 등 日朝協會 파괴 기도가 무참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結成呼訴 集會에 朝總聯 대표가 출석하여 격려했다는 노골적인〔北〕朝鮮側의 간섭행위를 병행하고 있어 단순한 一地域에서의 사건으로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金日成主義나 ‘주체사상’을 日本의 유일한 혁명 지도 사상이니 하여 책동하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은 정말 어리석고 또 한 줌도 안되는 음모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들의 책동이〔北〕朝鮮과의 친선이니 우호니 또는 思想의 研究니 하는 것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으면서 朝鮮勞動黨의 야만적인 패권주의적 간섭 책동의 대변자로서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진보적 민주운동에 적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朝鮮勞動黨이 결코 큰 黨은 아니지만 日本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社會主義國의 政權黨이며 더구나 그 지도하에 있는 朝總聯이라는 큰 조직이 日本에 존립해 있기 때문이다.

日本과 南北朝鮮과의 관계는 在日朝鮮·韓國人이 在日外國人の 80%를 차지하는 68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상징되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어떤 나라와의 관계보다도 깊은 것이다. 在日朝鮮·韓國人은 교육·인권·취직 기타의 면에서 차별을 받으며, 또 그 혼인 件數의 70% 이상이 日本人과의 혼인이어서 日本 국적의 취득도 증가하고 있는 등 다른 在日外國이나 韓國人들과의 관계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兩國 관계의 깊고 복잡한 양상과 그 역사적 근원인

14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往年의 日本 軍國주의의 침략 등을 이유로, 만약 朝鮮勞動黨이나 朝總聯측으로부터의 日本의 민주 운동과 日朝友好運動에 대한 패권주의적 간섭과의 투쟁에 소극적·방관적이 되거나 北朝鮮이 말하는 것에 무엇이든지 추종하는 것이 우호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無批判的으로 동조하거나 한다면, 그것이 兩國間·兩國人民間의 올바른 관계 전망에 역행하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또 양국의 관계가 이와 같이 유달리 깊기 때문에 兩國間·兩國人民間의 관계는 절대로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自主·同權·內部問題 不干涉을 원칙으로 하여 올바르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II. 7·4南北共同聲明 支持強要와 干涉策動

朝鮮의 南北 당국간의 “7·4共同聲明”은 1972년 7월 4일, 南北이 동시에 발표하였다. 朝總聯은 즉시 日本의 民主運動에 그 지지를 ‘요청’하는 운동을 격렬하게 개시하였다.

같은 해의 4월 15일은 金日成의 還甲(60세)인 생일이었다. 朝總聯은 그 축하를 日本의 民主의 人士와 단체 등에 ‘요청’하는 운동을 그 前年부터 전개하고 있었다. 朝總聯의 7·4共同聲明 지지 요청 운동에 선행된 이 金日成還甲祝賀 강요 책동은 日本의 日朝友好運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는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1. 金日成에의 贈物運動의 大規模的 強要

金日成의 환갑에 즈음하여 축하의 선물을 보내는 운동은 1971년 후반부터 朝總聯에 의하여 日本의 전국 도처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學者와 文化人 등 個人에 대하여, 그리고 勞動組

合, 大衆團體 및 각지의 日朝友好協會 기타에 대하여 朝總聯으로부터의 요청이 일제히 제기되었다. 社會黨과 總評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 결과 많은 學者들과 文化人 등 個人과 勞組 및 단체들이 외국의 지도자인 金日成에게 선물과 祝辭·祝電·祝旗揭揚 등 실로 진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은 日本 국내의 어떠한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 것이었다. 이 선물 내용은 朝總聯系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朝總聯은 저들이 조직한 이 金日成에의 선물 운동을 日本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기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主席에 대한 日本 國民의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가는 主席의 誕生 60주년에 즈음하여 日本의 수많은 각계 저명인들이 主席에게 정성어린 선물과 축전 및 축하의 편지를 삼가 올렸다는 사실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1974년 3월 2일자 『朝鮮時報』, 朝總聯 제10차 全體會議에서의 韓德銖 의장의 報告).

이 운동의 보고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日本 國民의 金日成에 대한 “尊敬과 信賴”에서 ‘삼가’ 추진된 것은 결코 아님을 당시 이에 관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朝總聯으로부터의 ‘要請’을 거절하면 ‘非友好的’으로 간주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던 것이었다.

왜 朝總聯이 金日成에 대한 선물 운동을 日本 각계에 ‘要請’하였던가. 당시 그것은 日本 국내에서는 朝總聯의 입으로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北朝鮮의 본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

1972년 4월 13일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및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은 連命으로 金日成 60세의 生日祝賀文을 발표하였다. 그 축하문은, 金日成은 단지 국내에서만 ‘위대한 수령’이 아니라 “世界革命運動의 발전에 있어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이 축하문은 또 金日成은 “國際共產主義運動과 世界革命의 발전에 이룩한 거대한 공헌에 따라 全世界의 革命人士들로부터 뜨거운 신뢰와 끊임없는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月刊朝鮮資料』 1972년 5월호).

同年 4월 3일 平壤에서 열린 金日成의 60세 생일을 기념하는 집회에서 在日朝鮮人 科學者代表團의 吳在陽團長은 이렇게 연설하였다.

오늘날 광범한 日本 人民과 세계의 진보적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首相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리켜 현대 인류의 모든 진보적 사상의 최고봉이며, 全世界 被抑壓人民의 革命鬭爭의 밝은 등대로서 金日成首相을 한없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 言名들은 朝總聯이 日本의 각계에 金日成에 대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要請’한 것은 金日成이 日本 人民에게 있어서도 ‘위대한 指導者’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日本의 각계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金日成에게 선물을 보낸 실제의 동기와는 무관한 것이며, 朝鮮勞動黨과 朝總聯은 단순한 國際儀禮 이상의 의미가 ‘要請’에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日本 人民이 金日成을 세계의 지도자로서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분명히 他國에 대한 지도자의 강요이며 개인숭배의 강요이었다.

18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이와 같은 金日成崇拜의 강요에 대하여 그것이 지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경고한 것이 日本共產黨이었다. 1971년 12월의 日本共產黨 제11차 대회 제6차 中央委員會總會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國際親善運動의 올바른 발전에 있어서 그것이 상대국의 外交路線의 지지 운동, 崇拜·盲從運動으로 타락되지 않을 것, 平和 5原則에 기초한 운동일 것, 그리고 日本 국민의 운동으로서의 자주성을 견지하며 조직적·재정적 자립을 도모한다는 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교훈에 비추어 보아서도 중요하다.

1972년 3월 11일 『赤旗』에 발표된 논문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올바른 發展을 위하여”는 소련 및 中共측으로부터의 特定路線의 강요와 간섭 및 맹종 세력의 분열 책동과의 10年來의 투쟁 교훈을 말한 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相對國政府의 外交政策 또는 방침의 지지 운동이나 상대국의 지도자의 생일에 관한 행사에의 협찬 또는 찬양같은 것을 日本의 友好運動에 끼워 넣는 것은 엄격히 삼가해야 합니다. 國際友好運動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구체적 정세와 여건에 합치된 문제 및 운동 방법과 형태에 따라 日本 국민의 자발성에 의거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友好運動상의 문제들을 상대국의 희망이나 의견만으로 의욕적으로 끼워 넣거나 이의 실행을 友好·非友好的의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것은 물론 큰 잘못입니다.

이 지적은 당시는 朝鮮勞動黨과의 관계가 구체적이었다는 것을 배려하여 상대의 이름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명확히 당

시 朝總聯이 강요하고 있던 金日成의 생일예의 선물 운동 등에 대한 일부의 영합에 대하여 보내진 경고였다.

朝總聯의 이 강요에 대하여 北朝鮮人民에 대한 ‘友好的 表徵’이라는 선의에서이지만 민주 세력의 일부 사람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日本共產黨의 논문의 지적과 같은 입장에서는 日本의 자각적 민주 세력의 다수는 日本 국민으로서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朝總聯은 나중에 가서 적지 않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金日成에게 선물을 보낸 것을 ‘現代 人類의 모든 進步的 思想의 最高峯’인 金日成에 대한 ‘日本國民의 尊敬과 信賴’의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朝鮮勞動黨과 朝總聯은 그와 같이 평가함으로써 金日成의 지도 사상을 日本의 革命運動과 民主運動의 지도 사상으로서 日本으로 들여오는 것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個個人과 개개 團體에 있어서는 우호의 선의에서 보내진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과 團體들이 朝總聯의 金日成 개인 숭배의 강요에 영합한 것은 결과로서 朝鮮勞動黨의 日本에 대한 패권주의적 간섭을 합리화하고 용기를 일깨워 주는 ‘根據’가 된 것이다. 그것은 北朝鮮과 같은 간섭의 과오를 改悛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 일은 日本의 國際友好運動에 있어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1987년은 金日成 75세, 그 아들인 金正日의 45세의 해가 된다 하여 그 祝賀運動이 또다시 朝總聯에 의하여 日本으로 들어와 이에 영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1월 22일의 朝總聯 常任委員會 주최의 “日·朝友好 新春 모임”에서 韓德銖 의장은 인사말에서 金日成의 75세 생일과 金正日의

45세 생일을 맞이하는 금년의 朝總聯의 倍前의 노력에 日本의 각계가 정신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朝鮮時報』 1987년 1월 26일자).

이에 발맞추어 3월 19일 東京의 和學會館에서 金日成 75세와 金正日 45세의 각각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회가 ‘日本 각계의 著名人들’이 發起人 및 提唱人이 되어 열리고 朝總聯의 新聞『朝鮮時報』가 이를 크게 보도하였다.

4월 15일의 朝鮮中央通信에 따르면 同日 平壤에서 열린 黨과 政府 주최의 金日成 생일 축하연에서의 李根模 총리의 연설은 金日成이

國際共產主義運動과 전반적인 世界革命運動의 강화 발전에 다대한 역사적 공헌을 함으로써 全世界의 共產主義者들과 진보적 인민들 사이에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고 말하였다.

이러한 ‘尊敬과 信賴’의 日本에의 강요에 영합하는 움직임,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日本에 대한 간섭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는, 國際連帶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對外追從의 굴욕적 행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번의 영합적 축하 운동이 金日成崇拜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 金正日을 金日成의 후계자로서 숭배하는 朝鮮勞動黨의 방침까지 무비판으로 영합하고 있는 것은 그 간판에는 비록 “日朝友好”를 내걸고 있지만 그 내용이 日本 국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前近代의 對外盲從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명하고 있다.

1983년 12월 9일자 『赤旗』에 발표된 日本共產黨의 無記名 論文

“金日成主義”信奉者들의 反共·反革新의 策動에 대하여”는 金日成에 대한 이 비정상적인 個人崇拜와 그 강요가 科學的 社會主義의 지도자에 관한 이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立憲君主制”라고까지 할 수 있는 지도자 절대화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여 비판하였다. 科學的 社會主義는 革命運動의 뛰어난 지도자는 언제나 인민 대중에 의하여 그 革命鬪爭으로써 태어나고 육성된다는 것을 밝히고, 지도자와 대중과를 대치시키는 잘못된 사고 방식을 보완해 왔다. 그런데 日本에 金日成崇拜 및 절대화를 이입하고 있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은 “革命的 영수는 지도하는 것” “人民大衆은 지도를 받는 것”으로 처음부터 엄격히 구분하여 ‘領袖’의 思想을 “唯一思想”이라 하여 그 이외의 사상을 금지시키고는 金日成思想이 얼마만큼 체득되어 있는가는 ‘영수’에의 관점이나 태도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史的 唯物論의 견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 “領袖論”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보급시키고 있는 것이 金日成의 還甲祝賀의 강요였다.

이것은 결코 미친 짓이라 하여 일축하고만 말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난폭한 “領袖論”. 金日成崇拜가 朝鮮勞動黨의 패권주의의 근원 및 그 이념적 지주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6년 6월의 日本共產黨 無署名 論文 “야만적인 霸權主義의 典型的 새로운 證明—朝鮮勞動黨 『國際生活』誌 論文이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主體思想’을 다만 朝鮮만이 아니라 “새로운 歷史的 時代에 있어서 世界의 인류의 前進運動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不滅의 共產主義理論”이라고 自稱하고(1982년 3월 金正日 “主體思想에 대하여”)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창시한’ 金日成을 朝鮮革命뿐만 아니라 ‘世

22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界革命'의 “위대한 思想理論家”·“빼어난 革命的 指導者” 등등으로 치켜세우는(1982년 4월 金日成 탄생 70주년에 즈음한 朝鮮勞動黨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가 보낸 祝賀文) 것이 완전히 미친 짓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불가피하게 패권주의를 낳는 근원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金日成主義’라는 것이 [北]朝鮮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그것을 世界革命的 최고의 중심사상이라고 미화하여 이것을 가능한 한 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犯罪的 愚行=霸權主義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몇 번이고 지적하는 바이다.

1970년대 초에 전개된 金日成生日祝賀의 강요 책동은 이와같은 犯罪的 愚行的 대규모적인 캠페인이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영합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日本이 어떻게 되건 전혀 관심이 없는 반사회적 파렴치 범죄와 다를 바 없다.

2. 聲明支持를 결정하지 않았던 協會에 대한 報復

7·4南北共同聲明 지지의 日本 民主運動에의 강요는 金日成 生日 문제 직후에 나타난 朝總聯의 干涉의 확대였던 것이다. 7·4南北共同聲明이란 南北 양 정권 指導者의 뜻을 받은 쌍방의 대표가 1972년 7월 4일에 조인한 것으로서 自主的 平和統一과 民族團結의 原則을 제창하고 相互交流과 南北調節委員會의 설치 등

몇 가지의 조치에 있어서 합의한 것이다.

7·4南北共同聲明이 지니는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상세히 언급하게 되지만, 南北朝鮮의 統一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로 되어 있는 美軍의 撤收問題에 대해서 이 성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韓·美측도 이 聲明을 무조건 환영하였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도 이 聲明을 무조건 환영하였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로서는 이때까지 美軍撤收를 統一의 불가결의 前提條件으로 하였으며, 괴뢰 정권이 南半部に 있는 한 統一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던 입장의 변경이었다.

[南北]朝鮮의 자주적인 平和的 統一, 즉 어떠한 外國의 간섭도 없이 武力行使나 戰爭에 호소하지 않는 南北朝鮮統一에 대해서는 國際輿論도 한결같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統一을 위하여 그때 그때 어떠한 방침과 政策을 취하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같은 것은 원래가 朝鮮 자체의 問題이며, 이 7·4共同聲明은 南北 쌍방의 견해가 담겨 있는 外交的 妥協의 소산으로서 日本이나 世界의 人民이 그에 대한 支持를 운동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었다.

하물며 일방의 당사자로서 이 聲明을 환영하고 있는 美帝國主義는 日本人民 자신이 투쟁하고 있는 직접적인 敵이다. 日本政府도, 日本의 부르조아 매스컴도 일제히 이 聲明의 支持를 표명하고 있었다. 日本·美國의 지배층이 어떤 의도에서 지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도 합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이 聲明을 지지한다면 日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의심스럽게 될 것은 자명하다. 더우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7·4南北共同聲明에 대한 합의는 同國의 지금까지의 주장과도 일치되지 않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日朝協

會 내의 많은 會員들은 7·4南北共同聲明 지지가 協會에 강요되어 왔을 때 그것에 영합하는 태도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朝總聯은 日本 각계의 여러 團體들과 個人들에게 聲明의 支持를 요청하였으며, 社會黨과 總評이 이의 迎合運動에 앞장서고 말았던 것이다. 여러 갈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되어 하나의 일치점을 찾아 그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日朝協會에 대하여 7·4南北共同聲明의 支持를 강력하게 강요한 것도 이들 社會黨과 總評이었다.

이렇게 社會黨과 總評에 의하여 共同聲明의 支持가 제기되어 日朝協會 내에서 격렬한 討論이 벌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社會黨에서는 聲明을 지지하지 않는 日本共產黨이 섹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7·4南北共同聲明의 支持를 協會로서 표명하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聲明의 不支持를 協會로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協會의 제3차 全國理事會(9월 19일)는

協會는 日本國民의 要求에 입각하여 일치되는 問題에 있어서 행동한다는 原則으로 운영되어 왔다. “7·4共同聲明”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토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도모하기로 하고 당면의 일치되는 課題에 있어서의 運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라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日朝協會는 이렇게 하여 7·4南北共同聲明에 대하여 지지한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不一致點은 뒤로 제쳐 놓고 우선 일치되는 문제에서만 행동하게 되어 있는 日朝協會로서 이러한 결정은 당연하며, 日朝協會의 統一도 이렇게 해서 유지되었다. 日朝協會는 그 후의 總會에서 7·4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한 사람도 그 지지를 표

명하지 않았던 사람도 일치하여 共同聲明 이후에도 韓國에 계속 주둔하는 美軍의 撤收를 다시 요구하는 決議를 채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7·4共同聲明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南北朝鮮의 統一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낙인과 함께 난폭한 협박을 감행한 것은 朝總聯의 指導部였던 것이다.

朝總聯의 金炳植 第1副議長(당시)은 잡지 『世界』의 1972년 9월 호에 “朝鮮統一에의 確信과 展望”을 발표하고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南北共同聲明은 朝鮮의 자주적인 平和統一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이것을 지지하는가의 여부는 朝鮮의 統一을 지지하느냐 여부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떠한 궤변으로도 전체 朝鮮人民과 全世界人民의 전적인 支持歡迎을 받고 있는 南北朝鮮의 共同聲明의 正當性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金炳植의 論文은 朝總聯의 指導者의 이름으로 7·4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朝鮮의 統一을 지지하지 않는 것, 즉 “두 개의 朝鮮”을 획책하는 美國과 反動勢力과도 같다고 규정하여 협박하는 것이었다. 또 7·4南北共同聲明에 동조하지 않고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의 論議는 비록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궤변”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朝鮮勞動黨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 이외의 것을 모조리 敵이라 하여 배격하는 것이다.

이 金炳植의 論文은 이름을 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朝鮮勞動黨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자각적인 民主勢力을 反動과 同列에 놓고 공격하는 오만한 입장에

서서 자기 견해에 무조건 동조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1983년 아웅산 사건 당시 日本共產黨이 이 사건을 全斗煥의 自作劇으로 주장하는 朝鮮勞動黨의 見解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다시 “反動派의 謀略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惡意에 찬 매도로서 霸權主義의 攻擊을 자행한 것은 기억에도 새롭다.

朝鮮측은 7·4南北共同聲明의 支持를 결정하지 않았던 日朝協會에 대한 一定의 조치를 취하였다. 日朝協會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의 교류 창구인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와의 사이에는 해마다 쌍방의 人的 交流에 대하여 計劃書를 교환하며 쌍방의 일치된 계획에 입각하여 代表團을 교류해 오고 있었다. 당년에도協會는 1972년도의 交流計劃案을 4월 19일에 朝鮮측에 송부했으나 이에 대하여 8월 25일자로 朝鮮측으로부터 금후協會와의 人的 交流를 계속한다는 뜻의 다음과 같은 文書가 일방적으로 송달되어 왔다.

(前略)……우리는 선생(柳中政春 이사장을 지칭)이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와 日朝協會와의 사이의 금년도 人的 交流計劃에 관하여 보내 주신 친절한 편지를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으로 우리나라에 代表團을 파견하는 것에 관한 선생의 제의를 실현할 수가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선생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後略)

朝鮮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人的 交流의 중단 통고가 있는 뒤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의 人的 交流의 창구는, 7·4南北共同聲明 지지를 표명한 社會黨系의 각 단체들과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분열적 조직들과의 사이로 모두 이관되고 日朝協會와는 한 번의 例外를 제외하고는 人的 交流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해의 9월 7일 東京의 學士會館에서 열린 日朝協會 주최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창건 24周年祝賀會에서 來賓으로서 참석해 있던 朝總聯의 韓德銖 의장은 갑자기 會場에 共和國의 國旗가 차려져 있지 않다느니 하는 트집을 잡으면서 이것을 구실로 人事를 거부하고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퇴장하는 事件이 일어났다. 이 共和國創建記念 축하회는 日朝協會라는 日本의 民主團體의 集會로서 例年 朝鮮의 國旗같은 것을 내건 일은 한 번도 없었다. 朝總聯측도 해마다 이에 관계없이 출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韓德銖 의장이 갑자기 인사말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은 國際的 儀禮를 정면으로 짓밟은, 日朝協會에 대한 모욕적 행동이었다. 日本의 團體集會에 朝鮮國旗의 게양을 강요하는 이따위 행위는 참가자들의 면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日朝協會는 곧 朝總聯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友好關係의 유지를 바라는 善意와 自制에서 日朝協會는 이 사실을 스스로 공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日朝協會가 이 事實을 공개한 것은 朝鮮측으로부터의 공공연한 적대적 태도가 가해진 뒤인 1986년의 協會 내부의 學習資料 중에서도였다.

朝總聯의 이상과 같은 간섭은 日朝協會에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뒤에서 상세히 볼 수 있겠지만 잇달아 분열 조직들이 만들어졌으며 (北)朝鮮과의 人的 交流의 길을 단절당한 日朝協會는 얼마 가지 못해 '고사'할 것으로 策動者들은 기대하였다. 그러나 日本 국민의 자주적 주장의 운동을 견지하고 있는 協會는 運動을 그만두지 않았다.

3. 自國의 政策에의 絶對同調를 요구하는 霸權主義

7·4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南北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金炳植의 論文에서 나타난 당시의 朝鮮勞動黨의 입장은 2중의 의미에서 중대한 패권주의적 간섭이라 하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7·4南北共同聲明은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 統一方案이다.”라는 자기들 판단에의 절대적 동조를 日本의 民主勢力에 강요하고, 동조하지 않는 것은 敵이며 이에 보복할 것이라는 강압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이 7·4南北共同聲明의 입장이 南朝鮮에 進歩的 政權을 수립함으로써 對話統一은 가능하다는, 즉 왕년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주장해 온 입장과는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支持를 요구하는, 말하자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策이 어떻게 변하든 언제나 그 政策을 지지하라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오만한 霸權主義였던 것이다.

저들의 政策이나 路線을 他國·他民族에게 강요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相對國·相對民族을 武力으로 정복하여 동조·종속을 강요하는 것이 武力干涉이며 侵略戰爭이다. 武力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와 같은 政策을 강요하거나 그에 동조하지 않는 상대에게 공격과 전복 행위를 가하는 것이 난폭한 自決權의 유린이요 내정 간섭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朝鮮勞動黨이 언제나 반대한다는 ‘支配主義’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들이 路線에의 전면적인 追從을 日本의 民主運動과 日本共産黨에 요구하는 霸權主義가 社會主義의 大義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日本에서 社會主義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反社會主義的 犯罪라는 것은 日本共産黨의 지금까지의 論文도 지적해 온 바이다. 獨立·平等·內部問題不干涉이라는 原則이 共産黨·勞動者黨간의 관계의 大原則임은 1960년의 81개 國 黨會議의 합의로서, 또 政黨들간의 합의에 따라 裏書되어 그것은 이미 世界共産主義運動의 公認原則으로 되어 있다. 朝鮮勞動黨 스스로도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명확한 言明이 있다.

모든 黨은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남의 黨을 존중하여 서로 동지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共産黨·勞動者黨간에는 지위가 높은 黨과 지위가 낮은 黨, 지도하는 黨과 지도 받는 黨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각 黨의 指導理論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에서만 意義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 實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一國의 黨의 指導理論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남의 나라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一國의 指導理論을 全世界의 共産主義者의 指導理論으로서 내세울 수는 없으며, 그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共産主義는 결코 권위를 내세워서 안되며, 남의 黨에 자기의 思想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共産黨·勞動者黨의 사이에는 남의 나라의 黨이 자기의 意思에 따르지 않는다고 壓力을 가하거나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金日成, “現情勢와 우리 黨의 任務——朝鮮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행한 報告”, 『金日成著作選集』 (4), 朝鮮外國文出版社 刊, 1966년 10월 5일, p.356·p.358).

金日成의 이 연설은 共產主義運動에서의 黨간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國際關係의 이 原則이 民主運動의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7·4南北共同聲明 등 그때 그때의 저들의 對外政策의 支持를 他國의 民主運動에 강요하고,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朝鮮의 統一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는 따위로 공격을 가하며, 동조하지 않는 조직을 적대시하여 그 分裂·破壞를 획책하는 것은 바로 國際連帶의 公認原則의 유린이며 金日成 자신이 잘못이라고 말해 온 행위 바로 그것이며 霸權主義的 干涉임은 명백한 것이다.

朝鮮勞動黨과 朝總聯의 日本의 民主運動에 대한 간섭은, 이미 보아 온 바와 같이 1972년의 7·4南北共同聲明 지지의 강요로 본격화하는 등 사실상은 1970년대 초부터였다. 그러나 1983년의 아웅산 사건에서의 日本共產黨에 대한 패권주의적 간섭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1986년의 『國際生活』에 게재된 논문에서 霸權主義의 본색을 드러내어 日本共產黨 전복을 외치기에 이르는 급속한 확산을 보였다.

朝鮮勞動黨의 간섭은 日本共產黨 내에는 反黨分子를 육성할 수가 없어 民主運動의 분열 책동은 오로지 社會黨과 金日成主義 맹종분자들, 그리고 그들의 在日機關인 朝總聯 등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日本의 革命運動과 民主運動에의 개입·간섭이라는 문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朝鮮측의 日本의 民主運動과 國際友好運動에 대한 그때 그때의 政策支持의 강요는 7·4南北共同聲明 지지의 강요에 그치지 않는다. 高麗民主共和國聯邦案의 지지와 韓·美·朝 3者會談의 지지, 그리고 88올림픽 공동 주최의 지지, 南北高位 政治·軍事會談

의 지지 등등이 서명 운동과 지지 담화 캠페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의 金日成 75세와 金正日 45세의 생일 축하에 대해서도 朝總聯은 年初의 집회를 통하여 日本의 각계 인사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간섭 행위들을 잠자코 묵과하는 것이 朝鮮人民과의 友好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강요와 간섭의 관계, 말하자면 대등하고 평등하지 않는 관계에서의 日朝 양국 人民의 참된 友好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友好가 아니라 굴욕이다. 侵略의 歷史에 비유한다면 日本帝國主義의 지배에 무릎을 꿇은 朝鮮과 中國 등 괴뢰 세력의 親日的 입장과도 같은 것이다. 社會主義 朝鮮이 한시라도 빨리 社會主義의 大義에 어긋나는 잘못에서 벗어날 것을 바라면서, 간섭과 싸우며 잘못을 비판하는 것만이 今日 할 수 있는 [北]朝鮮人民에의 가장 정성 어린 참된 우호적 태도다.

日朝協會는 1970년대 초의 金日成 숭배와 7·4南北共同聲明 지지의 강요에 추종하는 일 없이 日本人民의 自主的 立場을 견지하여 그로 인하여 朝鮮측으로부터 人的 交流 단절 등의 報復行爲를 받아 가면서도 단호히 금일까지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과 韓國으로부터의 美軍의 철수, 在日朝鮮人의 민주적·민족적 권리의 옹호 등의 鬭爭을 끈끌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日朝 우호의 이름에 부합하는 운동인 것이다.

7·4南北共同聲明 지지의 강요가 [北]朝鮮측으로부터의 日朝友好運動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策支持運動으로 변질시키는 간섭의 공공연한 개시였다고 한다면 이에 굴하지 않고 7·4南北共同聲明에 대하여 자주적인 주장을 견지한 日朝協會의 태도는 참된 日朝友好運動의 기치를 지키는 日朝協會의 자랑스러운

32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鬭爭의 개시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7·4南北共同聲明 지지 강요
진후부터의 [北]朝鮮측의 간섭과, 이에 호응하는 金日成主義 맹
종주의 집단의 책동 및 그것들과의 투쟁을 더듬어 보고자 하는
데, 그에 앞서 간섭의 試金石으로 사용되었던 1972년의 7·4南北
共同聲明의 배경에 관하여 또 그것과의 관계에서 南北統一問題
를 둘러싼 北朝鮮의 입장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자 한다.

Ⅲ. 7·4南北共同聲明과 統一問題에 있어서 北朝鮮의 立場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은 大韓民國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朝鮮共產黨의 金英柱 組職指導部長에 의하여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조인되고 서울과 平壤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먼저 祖國統一의 원칙으로서

- ① 外部勢力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 ② 武力行使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 ③ 思想·理念·制度를 초월한 民族的 大團結

등의 세 가지를 제창한 다음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와 다각적 교류, 적십자회담에 대한 노력, 南北直通電話, 南北調節委員會의 설치 등을 쌍방이 합의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日本共產黨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日本의 자각적인 人士나 團體들과 함께 社會主義 나라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지지하고 있다 하여 이것을 무조건 지지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았다. 日本共產黨은 이 共同聲明 발표 직후의 松本善明(마쓰모토 요시아끼) 外交政策委員長 대리의 談話를 통하여 朝鮮의 自主的·

平和的 統一에 대한 지지의 입장은 불변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南北朝鮮의 統一을 계속 파괴해 온 美國이 여전히 南朝鮮에 주둔하여 파괴 정권의 군비를 강화해 가면서 이 聲明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 등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이 共同聲明은 自主的 統一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존재와 그 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言及이 없었던 것이다.

7·4南北共同聲明은 美國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韓國만이 南北朝鮮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해 온 입장에서 ‘두 개의 朝鮮’의 고정화로 명확히 접어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南朝鮮의 확보라는 부동의 戰略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7·4南北共同聲明에 대한 朝鮮勞動黨의 調印은 그때까지 同黨이 처해 온 입장에서 보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전환이었다. 물론 一國의 外交方針이 전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그때의 이러 저러한 구체적 指導나 外交政策은 모두 지지해야 하며, 지지하지 않는 것은 우호적이 아닌 反動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과 함께 外國에 대하여 支持를 강요하는 과오다. 우리의 日朝友好運動은 日本 국민의 입장에 선 운동이며, 外國으로부터 들고 들어온 그때 그때의 外交政策이 어떻게 변하건 상관없이 언제나 모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그것이 友好的의 표시 따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自主性이 없다는 것과 見識이 없다는 것, 스스로의 일관성이 없음을 입증할 뿐인 것이다. 다음에서 南北統一問題에 관한 朝鮮勞動黨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입장에 대하여 역사적 경위를 간단히 뒤돌아보는 것도 이 일을 사실로서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1. 美帝의 ‘白旗’ 降服論과 7·4南北共同聲明

第2次世界大戰 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南北에 별개의 정권이 들어서 있는 朝鮮半島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聯邦制에 의한 統一國家를 주장하고 있다. 韓國은 南北 양 정권간의 不可侵協定과 UN에의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화를 통한 平和統一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의 주장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두 개의 朝鮮’의 固定化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 政權이 다 같이 “統一”의 주장은 버리고 있지는 않으나 거기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양 政權이 모두 現行憲法에서는 각기 스스로를 朝鮮半島에 있어서의 유일한 代表國家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大韓民國憲法」(1972년 12월 27일 개정)은 그 제3조에서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屬島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72년 12월 27일 채택)은 그 제1조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全朝鮮人民의 利益을 대표하는 國家”라고 하며, 제5조에서

北半部に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성취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外部勢力을 물리쳐서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 祖國을 평화적으로 통

일하여 완전한 民族的 獨立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朝鮮戰爭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南部를 武力으로 해방함으로써 統一을 성취시킬 것을 공공연히 의친 최초의 事件이 된 것이다. 이 戰爭은 內戰으로서 일어났다. 당시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공식 문서는 “李承晩이 일으킨 內亂”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발발의 다음날인 6월 26일 金日成은 放送을 통한 全朝鮮人民에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으며, 朝鮮人民軍이 1개월여 동안에 釜山 주변에까지 南측을 밀어부치는 진격을 한 것도 歷史的 事實이다.

朝鮮人民은 李承晩 일당에 반대하는 이 戰爭으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그 憲法을 끝까지 수호하고, 南半部に 세워진 美國 괴뢰정권을 타도하여 祖國의 南半部를 반역자 李承晩 일당의 반동적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人民政權인 人民委員會를 南半部に 부활시키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깃발 아래 祖國統一의 大業을 완성시켜야 합니다(『金日成著作選集』 6권(일본어판), 平壤, 外國文出版社 刊, 1981년, p.12).

朝鮮戰爭은 9월 29일의 美軍의 仁川上陸에 의한 美軍의 대규모적인 개입으로 국제화하였다. 中國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보내어 참전하였다. 北緯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쌍방의 대치 끝에 다음해인 1951년 6월 소련의 말리크 UN 대표의 제안으로 板門店 휴전 교섭이 시작되었다.

1953년 7월 27일의 休戰協定 조인은 UN군과 朝鮮·中國軍을

당사자로 한 것으로서 韓國은 당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協定은 南北 ‘쌍방의 關係政府’에 대하여 외국군 철수 문제 등에 관해 대표에 의한 교섭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 協定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韓國政權을 교섭 상대로 간주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1956년 4월 23일 朝鮮勞動黨 第3次大會에서의 金日成의 보고는

朝鮮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南北朝鮮 정부 대표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열고 朝鮮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 제기하였다.

1960년 8월 14일에 金日成은 解放 15주년의 慶祝大會에서의 연설에서 南北聯邦制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처음으로 직접 南朝鮮 당국을 상대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南朝鮮 당국이 이 聯邦制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선 實業界에 의한 經濟委員會를 만들어 物資交流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이 提案은 美軍撤收와 南北 쌍방의 兵力을 각각 10만 명 이하로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먼저 南北朝鮮의 代表가 한자리에서 만나 대화해야 한다면서 美軍撤收를 南北對話 실현의 前提條件으로 하지는 않았다.

金日成이 이러한 提案을 한 것은 南朝鮮에서의 李承晚政權이 무너진 직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朴正熙軍事政權의 수립과 일련의 反共的 治安立法과 人民彈壓, 그리고 1965년의 日韓條約 체결이라는 사태와 함께 그 후의 南北關係는 냉각 일로를 치닫게 되었다.

1968년 9월 7일의 건국 20주년 記念集會에서의 金日成 연설은

南朝鮮에 美軍과 그 앞잡이들이 있는 한 나라의 平和的 統一은 있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朝鮮人民은 單一民族으로서 하나의 國家, 하나의 政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朝鮮民族 유일의 國家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입니다.

暴力鬭爭 없이 平和적인 방법으로 南朝鮮人民이 權力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幻想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南朝鮮人民과 힘을 합쳐서 民族解放革命을 성취하고 祖國統一의 大業을 달성할 결정적인 鬭爭에 동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美帝國主義가 쫓겨 나고 南朝鮮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승리하여 人民이 政權을 장악하게 되면 北半部の 社會主義 세력과 南朝鮮의 民主主義 세력과의 단결된 힘으로 祖國의 統一大業은 달성될 것입니다.

南朝鮮에 美帝國主義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平和的 統一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오직 南朝鮮에서 現 괴뢰 정권을 뒤엎고 진보적 세력이 政權을 잡은 뒤에야 비로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金日成著作選集』5권(日本語版), 平壤, 外國文出版社 刊, 1979년, p.193~p.199).

이러한 견지는 1960년의 聯邦制 제창에 비하면 180도의 전환이다. 南部에 대한 武力解放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는 朝鮮戰爭의 시점으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든다. 1970년 11월 2일의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에서의 다음과 같은 金日成 보고도 이 입장을 담습한 것이었다.

최근 南朝鮮 괴뢰가 떠들고 있는 “平和統一 구상”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祖國統一의 問題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철두철미 거
짓과 속임수에 찬 정치적 모략 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南朝鮮에 美帝國主義 侵略軍과 현재의 괴뢰 정권을 그냥 두고서는
나라의 平和的 統一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70년 8월 15일 朴正熙는 ‘광복’ 25주년의 연설에서 “平和統一
구상”을 밝히면서 南北對話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金日成主席 革命活動史〕(1983년; 平壤, 外國文出版社 刊의 日本
語版)에 따르면, 金日成은 1964년 2월의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集會에서 南部에

革命的 강력한 主力部隊를 조직해야 한다.

는 것을 지적하였고, 同年 3월 主體思想을 지도 방침으로 하는
革命的 黨을 건설하기 위하여〔南朝鮮의〕 각 道에 地下革命組織
을 만들어 指導的 中核을 육성하여 統一革命黨創立準備委員會를
결성하였다. 1968년 1월에 서울의 韓國大統領官邸(靑瓦臺; 역주)
를 31명의 이른바 무장 게릴라가 습격하여 투항한 1명을 제외하
고 전원이 사살되는 事件이 있었다. 同年 8월에는 金日成도 애
국자의 행동이라고 인정한 “統一革命黨發覺事件”이 있어 158명이
체포되어 그 중 5명이 사형, 4명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南
朝鮮의 東海岸에의 “무장 게릴라”의 상륙이 크게 보도되는 등 南
朝鮮에서의 武裝鬭爭과 그 진압이 눈에 띄게 된 것도 1968년이
었다.

이 “統一革命黨”은 1969년 8월 25일에 서울에서 정식으로 창립
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同黨은 1985년 8월에 명칭을 “韓

國民族民主戰線”으로 개칭하고, 지도 이념을 主體思想으로 하여 장기 투쟁 목표를 그때까지의 社會主義·共產主義 건설에서 바꾸어 “反美 自由化를 위한 民族解放鬪爭”으로 하고 美侵略軍 축출의 요구에 대신하여 “軍統帥權 奪還”을 내세우는 등의 방침 전환을 발표하고 있다.

1971년 4월 13일, “朝鮮統一問題에 관한 8大方針”이 南朝鮮의 동포에게 보내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호소의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呼訴文은 8개 항목의 방안에 입각한 南北對話를 통한 統一問題의 平和的 解決의 前提를 그 前文에 약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南朝鮮에서 朴正熙 괴뢰 일당이 타도된 뒤에 참된 人民의 정권이 수립되거나 또는 애국적인 民主的 人士가 政權을 잡았을 때에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1971년 전반까지의 北朝鮮의 統一問題에 대한 입장은 南朝鮮의 朴政權이 타도되어 人民政權이 들어서지 않는 한 統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대체로 일관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金日成의 입장도 1971년 후반에 큰 전환을 보였다. 그것은 1971년 8월 6일 당시 론놀 등 反動勢力의 쿠데타로 쫓겨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를 환영하는 平壤市民集會에서의 金日成의 연설에서 제시되었다. 金日成은 이 연설에서 4개월 전에 제안했던 “朝鮮統一問題에 관한 8大方針”의 前文에서 제안했던, 南朝鮮에서의 進步的 政權의 수립이라는 前提條件을 없애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南朝鮮의 爲政者들이 우리의 8개 항의 平和統一方案을 받아들이고

안들이고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統一을 바란다면 무엇 때문에 南北이 접촉하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南朝鮮 政權은 여전히 朴政權이었지만 4개월 전에 내세우고 있던 前提條件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朴政權과 금방이라도 對話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도 180도의 전환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 大轉換의 理由와 經緯에 대하여 金日成도 北朝鮮의 公式文獻도 아무런 說明이 없다. 그 사정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의 하나가 1966년의 “文化大革命” 이래로 板門店에서의 代表를 철수시키고 있던 中國이 이 해의 7월에 다시 代表를 교섭에 참여시킨 일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4월부터 8월까지의 4개월 동안 이러한 大轉換을 金日成에게 촉구한 것은 7월의 키신저의 갑작스러운 北京 방문과 그에 뒤따른 급속한 美·中의 접근이었다. 1971년 8월의 시아누크 환영의 연설에서 金日成은 또

지난날 朝鮮戰爭에서 패배했던 美帝國主義 침략자가 板門店에 白旗를 들고 나타났듯이 결국 닉슨은 北京에 백기를 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 말하고 있었다. 美·中 접근을 美國의 항복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연설 내용으로 보아 金日成의 이른바 “白旗論”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리가 美·中 접근에 대한 닉슨 정권의 의도를 옳게 꿰어 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였다.

닉슨 정권의 對中 접근의 의도는 日本共產黨의 第11次大會(同年 7월)의 결의가 이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美帝國主義는

60만 명의 원정군과 第2次大戰 때의 2배의 탄약을 투입하면서도 越盟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실패를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인계받은 닉슨 대통령은 한편으로 스스로의 核武裝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과 중속국들에 대한 군사 부담의 인계를 추진하고 世界의 共產主義運動의 대립, 특히 소련과 中國의 대립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하여 소련 및 中共과의 관계를 연화(軟化)시킴으로써 인도지나에 힘을 집중시킬 것을 노리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닉슨은 소련과는 SALT 교섭을, 中國과는 닉슨의 中國 방문 등으로 ‘平和共存’의 자세를 과시하면서 아시아에서의 각개격파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中國과의 對話’는 닉슨의 대통령 취임 당초부터의 기본 정책이었다. 中國과의 관계를 완화시켜 越南侵略에 집중한다는 政策은 닉슨에게 있어서 결코 180도의 전환은 아니었다.

美國이 1953년 7월 板門店에서의 休戰協定에 朝鮮 및 中國측과 함께 조인한 것이 美國의 항복 따위로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1971년의 美·中 접근을 美國의 항복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당시의 닉슨 美化論과도 궤를 같이한 美帝國主義의 世界戰略에 대한 過小評價로 이어지는 잘못된 情勢判斷이었다.

1971년 10월 31일의 “赤旗祭”에서의 記念講演에서 당시의 上田 耕一, 즉 간부회 위원이 美帝國主義의 越南侵略戰爭의 확대를

닉슨은 白旗를 들고 항복했다는 論理의 잘못은 더욱 명백해졌다.

고 지적하여 金日成의 주장을 꼭 집은 것은 아니었지만 비판했던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닉슨이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명백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事實은 北朝鮮측이 종래의 입장을 변경시켰다는 것이다.

1971년 8월, 金日成은 그때까지의 美軍撤收와 進歩的 政權 수립이라는 전제를 없애고 南朝鮮 정권과의 대화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이 정세 판단에는 “白旗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帝國主義가 敗退 일로에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서 다음해 1972년 1월, 金日成은 日本 『讀賣新聞』과의 회견에서 ‘緊張緩和를 위하여’ 그때까지 美國과의 휴전협정을 “南北간의 平和協定”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이미 韓國 주둔 美軍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南北의 긴장 완화가 前面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金日成은 1972년 美軍의 철수에 아무런 言及도 없이 南北相互非難을 금한 7·4南北共同聲明을 조인하고 韓·美측과 입을 모아 이것을 높이 평가하며 南朝鮮 정권과의 상설 연락 기관인 調節委員會의 설치에까지 동의했던 것이다. 한편 美國의 南北共同聲明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 底意에는 ‘두 개의 朝鮮’의 고정화와 韓國 확보의 유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美國은 항복은커녕 共同聲明 후 끝까지 美軍을 南朝鮮에 주저앉게 하여 韓國軍의 近代化를 비롯한 韓國에의 군사적·경제적 손실을 계속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美國은 여기를 新植地主義 정책의 발판으로서 확보해 나가면서 共同聲明에서 창출된 ‘緊張緩和’의 무드를 이용하여 인도지나 人民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 집중하고 있었다. 南朝鮮 당국도 聲明調印 직후에 協定에서 밝힌 “外部勢力”에는 駐韓美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언명하여 南北共同聲明이 美軍撤收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 계속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反國家團體의 不法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서 적대시하여 國家保安法과 反共法 등의 파쇼적인 탄압법을 앞으로도 南部에서 유지할 태도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1971년에는 “朝鮮統一革

命黨 관계자”로서 체포되어 死刑判決이 내려져 있던 4명을 처형하고 또 간첩의 명목으로 3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었다.

말할 나위도 없이 南朝鮮으로부터의 美軍撤收와 南北朝鮮의 自主的·民主的 原則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의 사업에 대해서는 日本의 民主勢力은 이때까지 일관하여 변함없이 連帶를 표명해왔다. 이것은 南北朝鮮問題 해결의 根本問題인 것이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한 鬭爭을 추진하는 것은 世界의 民主的·進步的 勢力의 公同의 大義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美國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지한 7·4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問題인 것이었다. 美帝國主義와 南朝鮮 黨국이 南北共同聲明을 지지하고 미화하여 美軍이 韓國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의도와 관련해서 日本의 民主勢力이 독자의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것은 南北의 自主的·平和的 統一의 지지와 하등 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武力統一에 반대하고 美軍撤收를 요구해 온 日本의 民主勢力에게 있어서 共同聲明의 지지는 그때까지의 입장과는 모순마저 되는 것이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朝鮮勞動黨은 1971년의 美·中 접근 속에 그때까지의 美軍撤收와 南朝鮮에서의 進步的 政權의 수립이라는 前提를 철회하고 南朝鮮 黨국과의 對話에 동의하여 1972년에는 美軍撤收의 약속도 없는 南北共同聲明에도 동의하였다.

“南北共同聲明”의 발표는 全民族의 가슴에 메아리쳐 환호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27년간이나 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겪고 있는 삼천리강산을 祖國統一의 새로운 열정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會談과 그 결과는 나라의 平和的 統一의 앞날에 커다란 돌파구를 연 획기적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 人民의 위대한 승리다(1972년 7월 5일자 『로동신문』 社說).

그러나 이 입장도 그 직후부터 다시 어떤 변화가 가해진 것이다.

2. 또다시 對話拒否, 그리고 3者會談까지

1973년에 金大中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朴政權은 北朝鮮과의 不可侵條約 체결과 南北對話 촉진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南측이 對話의 길로 나섰다고는 믿을 수 없다.

고 하여 거부하였다. 1974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美國議會에 보내는 서한에서 休戰協定과 대체하여 美國과의 사이에 平和協定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平和協定에 관해서는 앞서도 본 바와 같이 金日成은 1972년 1월에 『讀賣新聞』에 대한 회답에서 美國과의 사이에서가 아니라 南北 사이의 平和協定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번의 提案은 그것을 수정하여 對美協定으로 하고 朴政權을 그 상대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美國과의 平和協定 체결의 對話에 韓國의 참가를 거부한 것은 韓國이 休戰協定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1979년에 美國이 美國과 南北朝鮮의 3者會談을 제안했을 때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같은 입장에서 美國과의 會談에 南朝鮮 정권의 출석은 업저버로서의 자격으로 국한하고 동등 자격으로서의 南朝鮮 정권의 참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1980년의 쿠데타로 全斗煥政權이 등장하였다. 이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정식으로

그들과 대화해 보아야 統一을 위한 對話가 될 수 없다.

고 말하여 全斗煥政權을 對話의 대상으로 삼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했던 것이다. 1980년 11월에는 朝鮮의 北半部 諸政黨과 大衆團體 連席會議가 南朝鮮 인민과 해외 동포에 보내는 편지를 발표하여 金日成이 제시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설 방안”의 실현을 위한 共同協議機構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편지도 南朝鮮의 인민과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것이며 南朝鮮의 政權 당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1981년 1월에는 全斗煥이 “南北最高責任者の 相互訪問”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全斗煥은 對話의 상대가 될 수 없다.

고 정식으로 성명하고, 反共政策의 포기와 美軍撤收를 세삼 요구하였다.

1983년 10월의 아웅산 사건 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營通信은 그 第1報로 “全斗煥은 폭탄의 세례를 받았다.”고 보도하여 테러의 보복을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南朝鮮 당국과의 대화 거부 태도를 또다시 전환시킨 것이 1984년 1월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발표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美國 및 韓國과의 “3者會談”의 제안이었다. 이 提案은 前年 10월의 아웅산 사건 직후의 일이었는데, 中國을 중개로 하여 먼저 美國에 외교적으로 표시된 뒤에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府와 國會로부터 美合衆國의 政府와 議會에 보내는 서한으로 제안하는 형식을 밝혔다. 그 내용의 주된 점은, 먼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美國 사이에서 平和協定을 체결하여 美軍撤收問題를 논의하고, 이어서 韓國과의 사이에 南北不可侵協定을 맺는다는 것이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새로이 제안한 이 3者會談은 그때까지 共和國이 거부해 온 美國·南朝鮮측의 제안을 얼마간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는 1974년에 朴政權이 제안했을 때도 계속 거부해 오던 南北不可侵協定이며, 또 하나는 平和協定은 美國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하여 그를 위한 대화에 韓國이 대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왔던 것의 철회인 것이었다.

南朝鮮으로부터의 美軍撤收는 이 제안에서는 “美國과의 平和協定에 포함된다.”고만 했을 뿐 3者會談의 전제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의 이 제안은

3者會談에서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不可侵宣言이 채택됨으로써 朝鮮에서 긴장 완화와 朝鮮統一의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 朝鮮의 北과 南 사이의 對話를 연다.

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平和協定은

모든 外國軍을 철수시키는 問題를 포함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만 어느 시점에 전면 철수가 완료되는가 등은 전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이때까지 南北統一의 전제, 말하자면 그 입구에 놓여져 있던 美軍 철수의 요구가 平和協定 뒤의 統一을 위한 對話의 다음에, 그것도 기한의 명시가

없는 장래, 말하자면 출구로 옮겨진 것으로 보였다.

이 문제에서 시사적인 것은 金永南 副首相 겸 外相이 캐나다에 사는 朝鮮人 신문 『뉴 코리아 타임즈』와의 회견에서의 一問一答에서 말한 해설에서 볼 수 있다. 朝總聯계의 잡지 『月刊 朝鮮資料』 1985년 1월~3월호에 실린 것에 따르면, 현재 美國이 쥐고 있는 南朝鮮에서의 軍事統帥權을 비롯하여 모든 실권을 韓國이 가질 것, 그로써 美軍 주둔의 문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韓國과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美國과 韓國간의 문제로 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즉, 이 설명에서도 韓國의 “軍事統帥權”을 들고 나옴으로써 韓國에 있는 美軍을 철수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美國과 韓國간의 문제로 만들어 사실상 美軍撤收問題를 기한이 없는 장래의 문제로, 대화의 출구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질문 : 統帥權을 양도받으면 美軍이 철수하지 않아도 대화한다는 것입니까?

답 : 美軍의 철수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韓國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南측이 統帥權을 되찾아 美軍 철수와 핵무기 철거 등에 관하여 권한을 쥐게 되면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그것은 그 권한을 南朝鮮측이 양도받을 때는 美軍이 실제로 철수하지 않더라도 對話를 한다는 뜻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질문 : [光州虐殺事件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統帥權을 인계받을 때도 대화하는 것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對話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는 바와 같이 南朝鮮으로부터의 美軍의 철수 문제는 朝鮮問題 해결의 기본이며 自主的 統一 실현의 요청이다. 3者會談의 제안으로 美軍 철수 문제가 종래의 입구로부터 출구로 후퇴했다면 이 기본에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은 분명히 태도를 변경했다고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北朝鮮의 이 중요한 입장 변경을 딱 잘라서 코멘트한 것은 中國의 잡지였다.

1985년 9월 24일자 『北京周報』는 陶丙蔚 논문 “朝鮮情勢의 發展에 대한 見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朝鮮의 북부와 남부 및 美國의 3者會談을 가진다는 것은 1979년 7월 1일에 당시의 카터 美國 대통령이 서울에서의 “共同 커뮤니케이션”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朝鮮 북부는 그것을 장기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984년 1월에 3者會談을 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이것은 朝鮮 북부의 매우 큰 양보인 것이다.

朝鮮의 북부는 美國의 南朝鮮으로부터의 철수를 統一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공공연히 밝혔다.

이 지적은 金永南 副首相이 앞의 一問一答에서 설명한 美軍撤收問題를 韓國의 對美交涉에 맡긴다는 형식으로 사실상 보류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 논문이 3者會談이라는 형식의 동일성에서 1979년의 카터 제안과 1984년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제안을 동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 못된다. 카터의 그것은 南北對話의 축진이 목적이지만 北朝鮮과의 平和協定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79년 7월 1일의 카

더 대통령의 韓國 방문 때의 共同聲明은

朴大領과 카터 대통령은 對話의 촉진과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南北朝鮮 및 美國의 高級官吏代表會議의 개최를 제안할 것에 共同決定을 내렸다.

고 말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3者會談의 제안은 美國과의 平和協定 체결이 그 목표로 되어 있다. 그러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이 종래의 “3者會談反對”로부터 “3者會談提案”으로 입장이 전환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서 統一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美軍 철수 문제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에 큰 양보가 있었다고 하는 中國의 논평은 하나의 중요한 점을 설파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朝鮮統一에 대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입장은 朝鮮戰爭하의 武力統一論, 1960년의 南北聯邦制 제안, 1968년 전후의 進步的 南部政權 수립 요구, 1971년부터 1972년의 南北共同聲明까지의 美軍 철수 요구의 후퇴와 南측과의 대화 동의, 1973년 이후의 南部政權과의 대화의 거부, 그리고 1984년의 3者會談의 제안과 전제 조건에서의 美軍 철수 요구의 철회 등등이라는 큰 변천을 더듬어 왔다.

만약 우리가 이상과 같은 많은 변천을 해오고 있는 朝鮮勞動黨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그때 그때의 입장에 그때마다 맹종하여 지지를 표명해 왔다면 우리 자신이 朝鮮으로부터의 美軍 철수라는 기본 과제에 대하여 입구에 두었다가 출구로 두었다가 하는 우왕좌왕을 되풀이하는 꼴이 되어 日本 국민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택하는 정책과 입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또 이에 대응하

는 美國이나 南朝鮮의 反動政權의 의도가 어떠한 日本의 民主勢力으로서는 南朝鮮으로부터의 美軍 철수가 朝鮮의 自主의 統一의 위업에 民族自決權의 大義로서 연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 않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취하는 그때 그때의 정책을 그때마다 지지하여 그것이 朝鮮(北)에 대한 우호의 표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의 추종 운동이 되어 그 自主성과 見識의 결여, 그리고 정세에 대한 자기 판단 일치성의 결여 등이 문제될 것이 아니겠는가.

국제적인 友好·連帶는 쌍방이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상호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만 諸國民간의 友好·連帶의 운동도 국민적 기반을 가지고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1972년 3월 11일자 『赤旗』의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만약 自國의 정책 지지와 지도자의 숭배를 상대에게 요구하여 그것에 따르는 것이 友好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자주성을 유린하게 될 뿐 아니라 運動의 국민적 기반을 파괴하여 友好運動 그 자체를 성립될 수 없게 만들 뿐이다.

동시에 강조해야 할 것은 朝鮮問題는 그 역사적 관계에서도, 또 日本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로서도 日本의 平和·民主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國際問題의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日本 국민의 생활과 民主主義 및 民族自決權을 유린하는 日美安保條約의 화살의 하나는 朝鮮半島를 노리고 있다. 이 日美軍事同盟은 韓美軍事同盟과 일체화하여 美國의 核戰略의 일환으로서 아시아 諸國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서의 공통의 위협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國際友好連帶의 운동은 물론, 모든 民主運動의 분야에서 朝鮮民主主

義人民共和國의 그때 그때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友好的 표시인 양하는 잘못된 對外追從主義를 단호히 물리치고 日本 國民의 근본적 이익과 공통의 국제적 과제를 올바르게 결부시킨다는 입장에서 日本의 民主運動의 자주적 주장을 뚜렷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日本共產黨은 바로 이 입장을 다른 모든 政黨과는 달리 일관하여 끝까지 지켜 왔다. 戰前에 있어서는 日本帝國主義의 朝鮮 지배에 반대하여 朝鮮의 獨立을 요구하여 싸웠으며, 戰後에 있어서도 美國의 朝鮮 침략에 반대하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국교 수립을 처음부터 요구하여 싸워 왔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本共產黨은 日本 國民의 鬭爭課題와 확고히 결합시켜 美軍의 南朝鮮으로부터의 철수와 日韓條約의 폐기,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을 일관해서 지지하여 싸움으로써 그 중요한 國際的 責務를 다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日朝 양국 人民의 국제적 연대는 戰前에도 戰後에도 공통의 敵과의 공통의 鬭爭을 통하여, 그리고 自主·平等·內部問題不干涉의 原則하에 발전해 왔다. 이에 대하여 南朝鮮의 美軍問題를 애매하게 하거나 상대의 정책을 언제나 지지하는 것이 友好라 하는 따위는 國際連帶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수치스러운 對外追從主義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Ⅳ. 日朝友好運動에 대한 계통적인 干涉策動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日朝協會에 대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으로부터의 간섭에 관해서는 [北]朝鮮측 및 朝總聯과의 우호 관계가 서로 아직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하여 日朝協會측에서 그 사실들을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 왔으며, 協會의 내부에서도 이를 공공연히 논의하는 것을 삼가해 왔다. 그러나 1983년 10월의 아웅산 사건으로 朝總聯 신문이 日本共産黨에 대한 패권주의적 간섭을 해오고 日本共産黨이 이에 반론을 가한 뒤에 朝總聯은 例年 계속해 오던 그들의 신문지상에서의 協會와 朝總聯 대표자 사이의 新年人事 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비우호적인 행위로 나와 우호적 관계는 朝總聯측으로부터 단절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協會의 기관 내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日朝協會는 이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던 1970년대부터의 사실 경위를 협회 내의 學習討議를 위한 자료로서 정리하여 1986년 1월에 「日朝友好運動의 自主的 發展을 위하여」를 발행하였다.

本章에서는 日朝協會의 이 文書도 참고해 가면서 1970년대 초부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으로부터의 간섭에 추종하여 주로 社會黨측으로부터 日朝協會에 가해 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

國의 政策支持團體로의 변질을 강요하는 움직임에 대한 경위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1. 金日成에 대한 誓約과 分裂組織의 設立

日朝協會에서는 1955년에 발족했던 당초에는 在日朝鮮人(北系)들도 그 會員과 任員에 가입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朝鮮勞動黨의 지도 아래에 있는 “在日朝鮮人總聯合會(朝鮮總聯)”도 同年에 결성되었다.

日朝協會의 第1次全國大會가 채택한 규약은 회원에 관하여 日本 國民의 自主性과 主體性에 기초하여 日朝友好運動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正會員은 日本人에 한한다고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함께 활동해 온 경위도 있고 해서 在日朝鮮人은 ‘參與會員,’ 즉 업저버로서 입회할 수 있는 규정도 남겨 놓았다. 그러나 결성 후 1년 동안 실천과 토의를 통하여 日本 國民에 의한 운동이라는 독자성을 명확히해야 하는 중요성이 全協會 내에 더욱 깊게 자각되어 1956년의 第2次全國大會는

日朝友好運動은 日本 國民의 요구의 뜻에 따라 日本 國民이 행하는 운동이다.

라는 原則을 명확히하고, 在日朝鮮人과는 “상호의 독자성(自主性)을 존중한 위에서의 협력”의 관계를 가지기로 한 것이다. 이 원칙은 그 뒤의 여러 차례의 全國大會에서 다시 확인되어 갔다.

이렇게 해서 日朝協會는 결성 당초부터 日本人民으로서의 자주적 입장을 확립하여 朝鮮(南北)이 自主的·平和的 統一의 지지와 在日朝鮮人の 民主的·民族的 權利的 옹호 및 각 분야에 걸친 日朝(北) 교류의 촉진, 日韓條約의 반대 등 서로 일치하는 요구와 과제에 입각하여 政黨이나 思想·信條 등의 차이를 초월한 日本 국민에 기반을 둔 日朝友好連帶의 운동으로서 발전하여 政府의 對朝鮮(北) 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의 朝鮮勞動黨측으로부터 패권주의적 간섭의 시작과 그에 대한 추종 움직임으로 인하여 民主勢力的 통일된 운동으로서의 日朝友好連帶의 운동에는 여러가지의 장애들이 속출되어 왔다.

이미 상세히 보아온 바와 같이 1971년 중반부터 朝總聯은 우리나라에 金日成의 환갑 축하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社會黨과 總評 등이 이에 적극적으로 추종하였다. 1971년 8월, 金日成이 平壤에서의 시아누크 환영 연설에서

닉슨이 白旗를 들고 北京에 왔다.

고 말하면서 닉슨의 각개격과 전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닉슨 항복론”을 폄을 때도 朝總聯은 이 金日成 연설의 ‘學習’을 日朝協會의 각 지부에 강요하는 행위로 나왔다. 日朝協會는 金日成에의 선물 요청에 대해서는

外國의 지도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운동은 日本 국민의 전통과 관습에 합치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이에 응하여 전개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속에서 1971년 10월 日朝協會 第16次全國大會가 愛知縣에서 열렸다. 여기서 社會黨은 운동 방침에 “朝鮮情勢의 項에 金日成 평가의 表現”을 넣고, “日本의 現狀分析”에서 對美 종속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며, “自主·平等·對等·內部問題不干涉의 原則”의 明文化를 삭제한다는 등의 修正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국 代議員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이 수정안은 기본적으로는 부결되었다.

다음해 1972년 4월에 日本社會黨은 ‘伊藤 茂’ 國民運動局長을 단장으로 하는 “活動家代表團”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보냈다. 金日成은 이 伊藤 국장 등 社會黨의 代表團과 회견하였다. 社會黨은 이 伊藤 국장 등의 會見記를 기관지 『社會新報』 1972년 5월 7일자에 상세히 게재하고, 다시 기관지인 『月刊 社會黨』 同年 7월호에 伊藤 국장의 訪朝報告 논문을 실었다. 伊藤 氏는 이 회견 자리에서 金日成의 “白旗論” 연설을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년 8월 6일 金日成 수상의 平壤 대집회의 연설과 금년 3월 4일자의 『로동신문』 社說의 견해는 우리들 日本社會黨의 아시아 정세 및 닉슨 訪中에 대한 입장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平壤 대집회의 연설”이란 닉슨이 白旗를 들고 北京에 왔다는 “白旗論”을 말하는 것이고, 3월의 『로동신문』 사설이란 “日本軍國主義의 부활은 완료되었다.”라는 金日成이 1971년 10월에 日本의 신문에 발표한 견해를 확인한 사설을 말한다.

伊藤 氏는 또 이어 日朝協會를 (北)朝鮮측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방침을 金日成에게 역설하고 그 실현을 서약하였다. 金日成은 이에 만족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 부분은 『社會新報』

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伊藤국장 : ……우리는 귀국 후 5월 하순에 日朝友好運動의 기본 문제로 全國活動者會議를 新瀉市에서 열고 在日朝鮮公民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의 귀국선과도 교류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日朝協會에 國民이 광범하게 결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조직의 개선을 추진하는 문제와, 또 國民 각 층과 각 단체들간에 日朝友好運動을 넓히기 위하여 “日朝友好國民會議”를 결성하는 문제를 토의해서 여기서 결정된 방침을 토대로 하여 9월의 貴國 창건 24주년 기념일에는 日朝友好를 위한 國民大集會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日成 수상 :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金日成에게 日朝協會의 ‘改善’을 서약하고 金日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내는 것은 伊藤 대표단의 출발 전부터 社會黨의 계획이었다. 그 일을 伊藤 국장은 『月刊 社會黨』의 1972년 7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黨 中央執行委員會는 활동가 대표단의 日本 출발 前日인 4월 13일에 日朝友好地方議員聯盟의 전국적 조직화와 日朝協會의 改革強化 및 日朝友好를 위한 “國民的 共同鬭爭機關——國民會議(가칭)”의 결성, 日朝友好國民大會의 개최를 비롯하여 全國統一行動의 전개, 在日朝鮮公民의 民族的 民主權利的 옹호를 비롯한 새로운 운동의 발전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여 대표단의 朝鮮 방문 중에 이를 상세히 朝鮮(北)측에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의 전면적인 지지가 표명되었을 뿐 아니라 金日成 수상이 대표단과의 회견 중에서 “당신들의 투쟁

을 확고하게 지지합니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의 日本에서의 日朝 友好運動의 발전과 日朝 양국 인민의 友好連帶에 있어서의 공통의 기반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범한 結集”이니 “國民的 共同鬪爭機關——國民會議”니 하는 것은 公明黨을 넣어 自主性を 견지하는 共產黨을 배제하는 社公民路線의 ‘日朝友好組織’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社會黨의 반공 섹트주의와 對外 맹종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日朝協會는 日本 국민에게 기반을 두는 日本 국민의 자주적인 운동의 조직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든 하지 않든간에 朝鮮측에 事前에 상의하며 약속을 받아낼 필요 따위는 전혀 없는 일인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社會黨은 계획적으로 事前의 지지를 金日成으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더구나 그 ‘改革’이라는 것이 협회를 朝鮮勞動黨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임은 1971년의 第16次全國大會에서 自主·平等·內部問題不干涉 등 원칙의 삭제를 요구했던 社會黨의 修正案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伊藤 대표단의 金日成에게 한 이 약속은 日本의 民主團體를 相對國의 迎合團體로 만들겠다는 것을 그 相對國의 指導者에게 약속했다는 것이 되며 對外 맹종과 事大主義의 수치스러운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黨은 金日成에게 약속한 대로 伊藤 국장이 귀국하자 곧바로 5월 15일에 新瀉에서 全國國民運動部長會議를 열고 日朝協會를 金日成의 동의를 얻은 社會黨의 방침대로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다. 『社會新報』 1972년 6월 4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IV. 日朝友好運動에 대한 계통적인 干涉策動 59

日朝協會는 일부 政黨에 의하여 기구가 독점되어 활동도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傳統과 歷史가 있는 日朝協會를 黨의 노력으로써 보다 폭 넓게 日朝友好를 바라는 國民들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 결정되었다.

日朝協會와 日朝友好國民會議의 결성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會議는 日朝協會를 포함해서 광범한 단체들과 개인들이 널리 결집하여 대규모의 共同行動을 전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伊藤 國民運動局長 등의 설명을 각 縣의 대표들은 승락하였다.

이 기사가 “일부의 政黨에 의하여 機構가 독점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協會를 社會黨 마음대로 組織과 反共·對外盲從主義分子들로 機構를 ‘독점’하여 朝鮮勞動黨의 뜻에 따른 조직으로 바꾸고 싶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의 逆表現과 다름없는 것이다. 協會는 ‘畑中政春’ 이사장을 중심으로 일치점에 기초한 운영과 日本 國民의 운동으로서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협회 내의 日本 共產黨員도 이 원칙을 지지하여 協會의 統一 유지의 선두에 서서 분투하고 있었다. 社會黨에 있어서 “폭 넓게”란 公明黨을 넣어 共產黨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였다.

이 와중에서 1972년 7월 4일에 7·4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다. 社會黨이 朝總聯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추종하여 그 支持運動을 전개하면서 日朝協會에 대해서도 支持를 요청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972년 8월에는 金炳植 朝總聯 第1副議長이 『世界』 9월호에 7·4南北共同聲明에 관하여

이를 지지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朝鮮(南北)의 統一을 지지하느냐

나 알느냐의 척도이기도 하다.

라는 폭언을 포함으로써 패권주의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對文協)가 日朝鮮協會의 畑中 이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5일자 서한에서 인적 교류 계획의 중지를 일방적으로 통고해 온 것은 金炳植의 간섭 발언 직후의 일이었다.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측의 對外交流運動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社會新報』 1972년 5월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日朝鮮協會에 대한 인적 교류를 정지 통고에 앞서 그 해의 4월에 朝鮮을 방문했던 社會黨 伊藤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日朝鮮協會 ‘改革’을 포함한 ‘日朝友好運動의 推進方法’ 등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日朝鮮協會에 대한 이러한 [北]朝鮮측으로부터의 조치와 병행하여 社會黨은 日朝鮮協會에 대신하여 朝鮮勞動黨에 추종할 分裂組織을 잇달아 결성하였다.

그 하나로 “日朝文化交流協會”가 1972년 9월에 “日朝文化交流의 창구”라고 칭하면서 발족하였고,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는 이해의 8월에 日朝鮮協會와의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인적 교류의 창구를 여기로 옮겼다. 1973년 9월에 결성한 “日朝國交正常化國民會議”는 “國民的 共同鬭爭組織”이라 칭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 발족 시초부터 公明黨도 가담한 共產黨 배제의 “團體 共同鬭爭”이었다. 1972년~1973년에 걸쳐서 金日成主義를 신봉하는 安井 郁 등이 “主體思想研究會” 등의 이름으로 등장하여 金日成 사상을 日本 혁명의 유일 指導思想으로 끌어들이는 團體를 잇달아 만들어 나갔는데, 이 경위를 다음 章에서 상술하기로 하겠다.

1972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던 日朝鮮協會 第17次全國大會를 앞두고 社會黨은 同年 9월의 第3次全國理事會가 7·4南北共同聲明 지

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自黨이 요구하는 인사말과 7·4南北共同聲明 지지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대회 준비의 會議에 불참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다.

社會黨으로부터의 연기 요구와 ‘畑中’ 이사장의 사망 등이 겹쳐서 다음해인 1973년 4월에 이大會는 가까스로 열렸다. 社會黨은 協會 상임이사인 岡崎圭介 社會黨 朝鮮問題 대책 특별위원회 사무국 차장의 이름으로 『社會新報』 3월 7일자에 議案에 대한 修正案을 공표하고 金日成에게 약속한 대로 日朝協會를 ‘改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修正案은 7·4南北共同聲明 지지를 명확히하여 社會黨이 金日成에게 日朝協會의 ‘改善’을 약속하고, 그 다음해에 새로이 만든 “日朝文化交流協會”와 安井郁 등이 ‘主體思想’을 日本의 지도 사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만든 “日朝社會科學者連帶會議” 등의 對外追從組織과 ‘연휴’ ‘공동 투쟁’할 것을 확인하고, 國際連帶의 원칙인 “自主·平等·內部問題相互不干涉의 원칙”의 記述을 삭제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日朝協會에 日本국민의 자주적 운동단체로서의 입장을 배제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策을 언제든지 무조건으로 지지하는 단체로 ‘改革’할 것을 大會에 대하여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정안은 理事會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大會는 協會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理事會 제출의 原案을 진원 일치로 채택하였다.

日朝協會의 이 제17차 全國大會는 協會가 外部로부터의 격심한 간섭이라는 시련과 싸워 이겨서 日本國民의 運動으로서의 自主성을 끝까지 수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되었다. 日朝協會는 이 대회에서 결정한 運動方針에 따라 그 후에도 金斗煥政權의 파쇼적 본질을 규탄하고, 金大中 구출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또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과 日美韓 軍事一體化 反對, 韓·美 合同軍事訓練 反對의 투쟁과도 결부시키면서 ‘有事立法’ 저지의 鬪爭에서도 분투했던 것이다. 政府의 差別政策에 반대하여 在日朝鮮人の 民族的·民主的 權利를 옹호하는 투쟁도 계속되었다.

朝鮮對文協과의 인적 교류는 중단되었지만 協會와 朝總聯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1973년의 제17차 全國大會는 공식 중에 있던 회장에 ‘渡邊佐平’ 前 法政大學 總長을 선출하였으며, 協會는 이를 계기로 하여 朝鮮對文協과의 교류를 재개시키려는 希望에서 渡邊 회장 등 協會代表團의 朝鮮(北)訪問을 신청하여 1975년 10월, 渡邊 회장 등 5명의 協會代表團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과 회의를 통하여 日朝協會측은 日朝쌍방의 “一致點에 기초한 友好와 連帶의 強化”와 “양국 人民이 각자의 民族的 課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양국 人民의 友好와 連帶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이에 “완전히 동감”이라는 贊意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渡邊 대표단의 朝鮮訪問 후에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개개의 정책에 대한 지지 강요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協會와의 사이에서는 1972년 이래의 人的 交流 단절의 입장을 바꾸려하지 않아 人的 交流는 社會黨과 “日朝文化交流協會” 및 金日成主義 信奉者 등의 對外追從集團과의 사이에서만 확대되어 갔다.

1982년의 협회 제25차 全國大會에서 ‘山本薩夫’氏가 새로이 會長에 선출되었다. 朝鮮對文協은 1983년 3월, 山本 회장 앞으로 同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協會代表團의 초청을 통지해 왔다. 協

會는 쌍방의 對話가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回答書翰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을 미리 표명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日朝友好運動에 非正常的 狀況이 생겨나 日朝協會와 對文協과의 交流마저 中斷狀態에 있다. 이 10수년간의 경험에서 敎訓을 찾아 내어 自主·同權·內部問題不干涉이라는 國際交流와 連帶運動의 원칙에 의거, 일치되는 共通의 課題에 기초한 공동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 協會 代表團의 對話가 그와 같은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朝鮮對文協은 이 書翰에 끝까지 침묵하여 아무런 回答도 없었으며, 또 山本 대표단 초청에 대한 그 이상의 通知도 보내오지 않았다.

아웅산 사건에 대하여 朝總聯의 신문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見解에 동조하지 않는 日本共產黨을 사실상 공공연하게 비난한 데 이어 朝總聯이 新年의 관례로 되어 왔던 日朝協會와의 신문지상에서의 賀禮辭의 交換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도 이 해 연말의 일이었다.

자기들의 그때 그때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반동적인 敵이라 하여 日本共產黨이건 日朝協會건 가릴 것 없이 交流를 단절하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지지해 주는 勢力이면 누구든지 ‘友好’·‘親善’ 勢力으로서 交流를 확대해 나간다는, 이상에서 보아온 1970년대 초부터의 경위가 보여주는 朝鮮勞動黨의 일관된 입장은 國益 중심의 입장이지 社會主義나 共產主義 또는 社會進歩라는 공통의 目的이나 理想으로 연대한다는 共產主義者의 世界觀같은 것은 전혀 아니다. 科學的 社會主義의 원칙을 내던져 버린 實利實益 중심의 無原則外交의 實例는 우리가 中國共產黨

에서도 보아온 바이다.

朝鮮勞動黨의 ‘友人關係’도 또 근본적으로는 中國共產黨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1986년 3월의 朝鮮勞動黨의 잡지 『國際生活』 창간호의 日本共產黨에 대한 공격 논문은 日本에서 反共·反革新의 책동을 계속하고 있는 信奉者들을 “우리에게 친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정당화함으로써 그 패권주의·간섭주의에 대하여 정색하고 나왔다. 이에 대하여 日本共產黨은 同年 6월의 論文 “야만적인 霸權主義의 새로운 證明”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의 『朝鮮勞動黨』 잡지의 論文은 日本共產黨에 대한 공공연한 敵對分子인 ‘尾上健一’ 등 日本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이 중심이 되어 있진 말진 그런 것에는 아랑곳없이 그들을 朝鮮(北)에 친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라 하여 지지·격려하며 지원하는 따위의 태도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이를 日本共產黨이 對外追從主義者로서 비판하는 것은 방해하기 때문에 껄뻐하다는 등 공공연히 대들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에게 ‘親善的’으로 보이는 인물이라면 日本共產黨에 대한 敵對分子가 ‘中心이 되어 있진’ 아랑곳없이 지지·격려·지원한다는 것은 共產黨·勞動者黨간의 관계에 대한 公認의 원칙을 짓밟고 他國에 간섭하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추종하는 분파같은 것을 육성할 때 반복되어 온 霸權主義의 典型이다.

朝鮮勞動黨이 저들에게 추종해 주기 때문에 “친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로서 선택한 日本社會黨이 今日 완전히 右로 전락하여 다른 反共 야당과 함께 日·美軍事同盟마저도 용인하여 自民黨 反動路線과의 연합을 지향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런 것이 朝鮮勞動黨에 있어서 日本社會黨이 ‘친선적’이라는 것을 하등 변경하는 理由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今日的 사태가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다. 또하나 그들에게 ‘친선적’인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집단이 今日도 日本에게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反核平和·民主運動에 대한 敵對的 策動에 대해서도 다음 章에서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 自主性이 결여된 朝鮮統一支持集會

朝鮮(南北)統一을 지지하는 운동이나 집회에서 自主的 원칙이 견지되지 않고 민주적 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며, 朝鮮(北)측으로부터의 강요에 추종하는 따위의 집회가 되어서는 오히려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지지하는 運動들에 혼란·분열·후퇴를 가져오게 될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運動의 自主性 堅持의 중요성을 교훈으로서 삼겠다는 의미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집회가 두 가지 있었다. 그 하나가 1978년 11월 27일부터 3일간 東京에서 열린 “朝鮮의 統一을 위한 제2차 세계회의”이며, 또 하나는 1983년 11월, 埼玉縣에서 열렸던 “제2차 朝鮮統一支持運動全國集會”라는 것이었다.

1978년의 “朝鮮의 統一을 위한 제2차 世界會議”라는 세계의 민주적 세력이 南北朝鮮統一問題로 공동의 토의를 하라는 목적에서 열린 것으로서, 1977년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렸던 제1차 世界會議에 이은 것이었다. 日本 국내에 準備委員會가 조직되어 파리에 있는 國際連絡委員會 사무국과도 연결을 취하면서 준비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總評 등 일부 대표가 외부로부터의 간섭에 대한 추종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련의 이

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의를 朝鮮의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진지한 의도로 참가했던 各國 대표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 행동의 하나는 外國 代表들의 日本入國에 있어서 日本 정부가 “會議에서는 朝鮮問題로 日本政府를 비판하는 發言을 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조건을 準備委員會 幹事會의 채택도 없음에도 總評과 社會黨의 代表들이 마음대로 받아들여 버렸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행동은 會議에서 채택될 文書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日本측의 準備委員會 幹事會에서 일치된 日本측 草案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日本측 초안은 파리의 國際連絡委員會에는 보내지지 않았으며, 또 國際連絡委員會는 10일중에 제2차안을 日本의 準備委員會로 보냈다는데 日本측의 朝事會에는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태였다. 거기에서 國際連絡委員會의 제2차안의 日本語譯이라는 것이 社會黨의 관계자로부터 共產黨의 관계자에게 넘겨졌다. 이것은 原文인 프랑스어 번역과는 아주 다른 내용으로 “大民族會議의 召集”이니 또는 “朝鮮統一 5大方針” 따위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外交政策들이 원래의 용어들로 기술된 정체불명의 怪文書였다. 결과에 가서는 共產黨의 추궁으로 이 文書는 폐기되어 集會의 文書로 되지는 않았지만, 總評에서 나와 있던 幹事會事務局長은 그 출처를 끝까지 幹事會에 대해서도 숨기고 말았다.

1983년 11월 13일 埼玉縣 大宮市에서 열린 “第2次 朝鮮統一支持運動全國集會”라는 것도 국내적으로는 민주적 운영의 원칙이 깃뻛히고, 대외적으로는 추종적이라는 간섭으로 시종일관한 집회였다.

이 集會를 준비한 단체인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支持 日本

委員會”는 1976년에 “日本國民으로서 自主를 지닌 立場에 서서 一致點에 기초하여 운영할 것”을 확인하고 결성된 統一行動組織이다. 그 정규적 機關인 代表委員會에는 自覺的 民主勢力을 지지하는 人士도 참여하였다. 日本委員會는 1982년에는 兵庫縣에서 “朝鮮統一支持運動全國集會”를 각계 대표로 널리 결집하여 열었다. 그 集會의 준비에 있어서는 日本委員會는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개최지인 兵庫縣에서는 自主的·平和的 統一支持運動은 縣下의 統一行動組織인 朝鮮統一支持 兵庫縣民會議가 집회의 공동 주최 단체가 되어 있었는데, 日本委員會는 이 縣民會議와도 민주적으로 토의를 거듭하여 집회를 성공시켰었다.

1983년의 埼玉集會는 兵庫集會에 이은 “第2次 全國集會”이니 하며 자칭하였으나 그 경위도 내용도 兵庫縣集會와는 相異한 것이었다.

이 埼玉縣集會는 그 개최 결정마저도 日本委員會 내부에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최가 北朝鮮에서 발표되었다. 집회는 결과적으로 自主的 立場과 民主的 運營을 요구하는 自覺的 民主勢力의 不參下에 北朝鮮의 政策支持運動으로서 강행되었다.

이 집회의 계획은 日本委員會의 정규적 기관도 하부기관도 아닌 “朝鮮統一支持運動 都·道·府·縣 全國代表者會議”(6월 1일, 東京)의 席上에서 日本委員會 ‘岩林’(와카바야시) 事務局長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출석하고 있던 日本委員會의 代表委員會의 이 계획은 정규적 機關인 代表委員會의 討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데도 開催豫定地라는 埼玉縣에서는 이미 준비가 선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埼玉縣에는 민주세력이 통일하여 결집된 縣 단계의 支持委員會가 없다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代表委員會에서 좀더 올바른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뒤에 정규적 기관인 代表委員會가 열렸으나 여기서는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7월 25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를 訪問中에 있던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을 지지하는 埼玉縣民會議”의 ‘松村正照’ 事務局長이 平壤에서 聲明을 발표하고 埼玉縣에서 11월에 朝鮮統一支持運動 全國集會를 연다고 말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國營通信인 朝鮮中央通信을 이를 재빨리 보도하였다.

9월과 10월에 잇달아 열린 代表委員會에서 運動의 自主性에 관한 이러한 중대한 既成事實의 進行이 비판되고, 개최 연기의 提案이 代表委員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지금 와서 중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회는 강행되었다.

이 埼玉縣集會는 日本委員會와 “埼玉現地實行委員會”와의 공동 개최로 열리고 그 참가의 권유도 그 連名으로 행하여졌다.

“埼玉現地實行委員會”라는 것의 실체는 平壤에서 事前에 발표한 松村氏가 事務局長으로 있는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지지하는 埼玉縣民會議”라는 조직이 중심이었다. 이 ‘會議’는 1977년에 日本共產黨 埼玉縣委員會와 日朝協會 埼玉縣連 등에게는 정식으로 아무런 권유도 없이, 더구나 7·4南北共同聲明 지지 등 日本의 민주세력에서는 일치를 볼수 없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정책을 運動 방침의 基調로 하여 결성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강행된 埼玉集會에 日本의 광범한 민주세력이 결집될 까닭이 없었다. 埼玉縣의 日朝協會連도 이와 같은 성격의 集會에 공동 협력은 있을 수 없다고 표명하고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朝總聯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열린 이 집회는 때마침 일어난 아웅산 사건에 대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완전히 自主性을 상실한 北朝鮮追從運動의 캠페인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支持日本委員會”는 그때까지의 統一行動體로서의 성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을 지지하는 광범한 세력을 결집하여 투쟁하는 여건을 스스로 파괴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그때 그때의 政策을 지지하는 運動體의 하나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1972년 3월 11일자 『赤旗』에 발표된 日本共産黨의 無記名 論文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올바른 發展을 위하여”는 運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정책 지지와 指導者 찬양의 강요와 간섭에 대해 투쟁해 온, 日·소友好運動과 日中友好運動의 심각한 교혼을 다음 세 가지의 역사적 교혼으로 정리하여 지적하였다.

첫째, 國際連帶와 自主性的의 統一이다. 즉 쌍방이 공동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국제적인 友好·連帶의 運動은 상호의 自主性이 존중됨으로써 비로소 相互의 국민들간의 友好와 連帶運動이 국민적인 기반 위에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 一方으로부터의 강요나 간섭이 있으면 運動의 自主性은 유린당하고 友好運動의 국민적 기반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되어 友好團體에 커다란 손해를 준다는 교혼이다.

둘째, 干涉으로부터의 自主性的의 옹호이다. 실제로, 소련으로부터도 中國으로부터도 對外 맹종 분자를 앞세운 간섭과 분열의 공격이 있었지만, 상대가 社會主義國이건 말건 이러한 간섭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단호히 싸움으로써만 넓은 國民的 基盤의 友好運動으로서 발전시켜 쌍방의 人民의 大局의 利益에도 합치되는 참된 友好·連帶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民主主義的 原則을 지키는 것이다. 日本의 國際友好·連帶의 단체는 상대국의 人民과의 友好親善을 지향하여 社會主義를 지지하고 안하고를 초월하여, 또 思想·信條·政黨政派의 구별없이 광범한 사람들이 결집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인데 만일 여기에 상대국의 특

정의 政治的·思想的 立場의 지지를 나타낸다거나 민주적 토의도 거치지 않고 특정한 방침을 강행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국제문제 등으로 중대한 의견의 不一致가 내부에 있을지라도 단체의 原則을 지켜 一致點에 기초하여 행동을 통일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단결을 지켜 운동을 전진·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상의 세 가지 교훈의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도 國際友好·連帶運動은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埼玉集會”의 강행은 이 세 가지 교훈의 전부를 깨끗이 정면에서 짓밟은 것이었다. 그 결과 일정한 국민적 기반 위에 추진되어 온 統一行動體의 성격을 지닌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支持 日本委員會”는 사실상 실체를 잃고 만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日朝協會는 상대국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국으로부터 교류를 단결당했어도 이 세 가지 교훈을 견지하여 今日에도 國民 각층 속에서 政黨·思想·信條를 초월한 자주적인 運動을 지원 해 오고 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日本共產黨이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심각한 견해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이 세 가지의 역사적 교훈의 정직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3. ‘金日成主義’의 强要策動

1970년대의 초기에는 日本의 민주 운동과 國際友好運動에 대해

서 個人崇拜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對外政策에 대한 지지·강요라는 朝鮮勞動黨으로부터의 패권주의적 간섭이 개시된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진행된 중대한 간섭은 金日成의 이름을 내세워 朝鮮勞動黨의 指導思想을 日本의 革命運動과 民主運動의 유일한 指導思想으로 이입하려는 책동이였다.

1972년 4월, 金日成의 60세 생일이 비정상적인 규모의 운동이 된 것은 日本社會黨의 伊藤 대표단이 北朝鮮을 방문하여 金日成과 만나 日朝協會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정책에 추종하는 단체로 ‘개혁’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던 때와 같은 무렵의 일이었다. 平壤에서는 “全國社會科學者大會”라는 것이 열려서 여기에 초대되어 참석하고 있던 ‘安井 郁’이 “日本社會科學者代表團” 단장으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오늘날 主體思想은 바다를 건너 5大陸으로 확산되어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되어서 世界史의 前途를 눈부시게 비추주고 있다.

安井은 귀국하자 “日朝社會科學者連帶委員會”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는 스스로 그 議長이 되어 ‘金日成이 창시한 主體思想’을 日本의 指導思想으로 삼는 운동의 추진자가 되었다.

이에 앞서 1971년 중반경 朝總聯이 金日成還甲祝賀 선물보내기 운동을 강행하기 시작했을 무렵, 朝總聯의 新聞인 『朝鮮時報』는, 東京·愛知·橫濱 등에서 學者들이 “金日成著作研究會”라는 것을 결성하여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에서의 金日成報告 등을 학습하고, 金日成에게 찬양의 편지를 보내고 또 그 연구회의 合同集會를 열었다는 등 기사를 크게 실었다.

朝鮮勞動黨의 정식 문헌에 “[金日成의] 唯一思想體系”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67년 5월의 제15차 중앙위원회

總會에서였다. 1983년 平壤에서 출판된 「金日成主席革命活動史」의 日本語版에 따르면 그總會는 主席의 革命思想·主體思想으로 全黨과 全社會를 一色化하는 一大轉機가 되었다. 同 문헌에 따르면 金日成은 이 총회의 結語와 총회 후의 一連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확립한다는 것은 領袖의 革命思想과 黨의 政策으로 무장시켜 모든 黨員을 領袖와 黨中央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革命事業을 밀고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同文獻 p.430).

領袖란 구체적으로는 金日成 자신이기 때문에 唯一思想體系라는 것은 金日成의 思想만을 唯一思想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해 12월, 最高人民會議에서 채택한 10대 政綱 속에서 처음으로 “主體思想의 確立”을 제창하고, 이 唯一思想體系는 黨內에서만이 아니라 政府의 政策으로서 全國民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南北統一問題에 있어서 朝鮮勞動黨의 立場이 그때까지의 南北對話에서 武力解放統一論으로 전환했던 때에 상응한다.

1970년 11월의 朝鮮勞動黨 第5次大會는 ‘主體思想’과 ‘金日成의 思想’을 유일한 思想體系로 삼는다는 것을 大會 이름으로 정식 결정하였다. 이 대회에서의 金日成報告는 ‘主體思想’에 대하여 설명하고 “主體를 확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自國의 革命과 建設에 대하여 主人으로서의 態度를 가진다는 것”이라는 일 반론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黨은 革命을 지도했던 당초부터 事大主義와 教條主義에 반대하여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싸워 왔으며 革命과 建設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그 鬭爭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렸습니다.

뒤에 朝鮮勞動黨의 文獻에서 거듭 강조되는 바에 따르면 “革命을 지도했던 당초부터”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코민테른과 결부된 朝鮮 국내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은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이었지만 金日成은 中國 東北地方에서의 抗日빨치산活動中에 “主體를 확립한 黨”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主體를 확립한’ ‘主體思想’이라는 것은 朝鮮革命의 指導思想의 集大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朝鮮國內에서 革命運動을 지도하고 있던 사상과 완전히 구별된 中國 東北部에서 활동하고 있던 金日成의 思想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 思想에 “人間이 모든 것의 主人”이니 하는 ‘哲學’的 意味의 定義가 있게 되는 것은 그 뒤의 일이며, 1972년의 日本의 『毎日新聞』에 대한 回答 속에서였다.

이 第5次黨大會에서 金日成은 ‘主體思想’에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새로운 發展 단계와 그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겨 났다.” 고 하는 국제적 의미까지도 부여하였다.

1971년의 新年에 金日成은 朝總聯의 韓德銖 의장에 대한 祝電에서 在日朝鮮人의 思想 및 信條를 초월한 團體인 朝總聯도 이 思想을 유일한 思想體系로서 觀瞻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이 祝電에서 朝總聯에 대하여

總聯은 또 日本人民과의 友好團結을 발전시키고 世界各國의 人民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黨의 위대한 主體思想을 더욱 빛내고 우리 黨의 國際的 連帶를 공고히해야 합니다.

라며 日本과 世界에 이 ‘위대한’ 思想을 넓혀 나갈 것도 지시하였다.

金日成은 그 뒤에도 자기의 思想인 ‘主體思想’을 日本에 指導思想으로서 강요하는 발언을 계속하였다. 1974년 9월, “우리나라의 情勢와 在日本朝鮮青年同盟의 任務”라는 연설 중에서 金日成은 在日朝鮮青年의 임무로서 日本을 무대로 하여 ‘주체 사상’을 넓혀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外國의 青年들에게 우리 黨의 主體思想을 널리 해설하고 선전해야 합니다. 東京은 世界各國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국제적인 大都市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무대를 잘 이용하면 우리의 革命事業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各國의 青年들과의 團結을 강화하는 活動을 활발히해야 할 것입니다.

잡지 『世界』 1976년 6월호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統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朝鮮의 人民이 눈을 떠야 하며, 또 日本人民이 눈을 떠야 합니다. 나는 日本人民들 중에도 日本이 美國의 압력에서 벗어나 自主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自主의 길”이란 뒤에 “日本の 自主化에의 길”이라고도 말하게 되지만, 日本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이 “주체의 길”과 같은 意味의 用語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의 기관지의 題名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1984년 9월, 石橋 위원장 등 日本社會黨 代表團의 歡迎宴에서의 연설과, 1985년 6월의 잡지 『世界』의 編輯長에 대한 回答 속에서 金日成은 “日本을 자주화할 것”을 호소하면서

日本の 각 계층 人民과 自由民主黨을 비롯하여 各界·各派도 日本을 자주화하는 신성한 事業에 떨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社會黨 代表團 歡迎宴).

고 말하며 日本의 反動勢力과 그 추종 세력들을 미화하고 自民黨과 反共野黨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日本の 自主化”란 어떤 것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말하게 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主體思想化’와 동일한 의미로 日本을 金日成思想의 지배하에 둘 것을 지향하는 것이며, 金日成이 제창한 독특한 노선이라는 것이다. 日本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은 金日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이것은 “自民黨을 敵으로 삼지 않고 日本을 現體制대로 두고서 자주화하는, 말하자면 帝國主義인 日本이 美帝國主義로부터 자립하는 길”이라고도 해설함으로써 對美 종속의 日本의 현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今日的 美日軍事同盟이라는 對美 종속의 체제하에 있는 現狀況을 외면하려는 현체제에 대한 美化며 그저 金日成思想에 日本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金日成 자신도 앞장 선 金日成思想의 日本에의 강요가 共產主義運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난폭한 간섭과 다름없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金日成 자신의 1966년의 발언인 “어느 한 나라의 指導理論을 全世界의 共產主義者의 指導理論으로서 내세울 수는 없으며, 그것을 남의 黨에 강요해서는 안됩니다.”는 것과 같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金日成 자신의 말과도 반하여 金日成과 朝鮮勞動黨은 金日成思想을 日本革命의 指導思想으로 강요하는 간섭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金日成思想이 세계의 指導思想이 되었다는 자만심을 확산·상승시켜 나갔다.

1972년의 金日成 60세 생일에 즈음한 北朝鮮의 黨·政府·議會 連名의 祝賀文은 金日成에 대하여 “世界革命運動의 發展에서 원칙적인 問題들에 올바른 解答을 주었고 國際共產主義運動과 世界革命의 發展에 이룩한 거대한 貢獻에 의하여 全世界의 革命의 人士들로부터 두터운 信賴와 한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1982년, 70세 생일에 黨과 議會 및 政府 3者의 連名의 祝賀文도 金日成을 “世界革命의 ‘위대한 思想理論家’ “결출한 革命의 指導者”라고 하였다. 1982년 3월에 발표된 金正日의 論文 “主體思想에 대하여”는 金日成의 思想을 “새로운 歷史時代에 있어서의 世界의 人類의 前進運動을 올바르게 이끌고 있는 不滅의 共產主義革命理論”이라고 칭하였다.

日本共產黨의 1986년의 論文 “야만적인 霸權主義의 典型의 새로운 證明”은 自國 指導者를 “世界革命의 결출한 指導者”라고 하면서 그 思想을 現代世界의 “不滅의 共產主義革命理論”이니 하는 자기도취는 필연적으로 霸權主義的 行爲를 현실적으로 자아낸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러한 축하문에 나타나 있는 자기도취야말로 金日成 生일 축하와 對外政策 지지를 강요하여 金日成思想을 日本 혁명의 지도 사상으로서 강요하는 패권주의의 根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安井 郁’ 일행이 1972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서 돌아와 日本에 金日成思想을 도입하는 “朝日社會科學者連帶委員會”라는 運動의 깃발을 올렸지만, 이것은 金日成思想을 현대 세계의 지도 사상으로서 日本에 강요하는 朝鮮勞動黨의 패권주의적 간섭에 대해 日本 국내에서 수치스러운 앞잡이가 되는 맹종적인 정치 조직의 공공연한 간관에 불과한 것이었다.

安井 郁과 尾上健一 등은 이미 1971년부터 “主體思想研究會”

나 “金日成首相研究會”니 하여 ‘研究組織’의 이름을 쓴 金日成思想의 日本에서의 보급 조직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朝總聯이 크게 보도함으로써 이것들이 모두 金日成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2년 3월10일자의 『赤旗』에서 발표한 日本共產黨의 논문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는 여러 외국의 경험과 社會主義建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것과 상대국의 지도자의 말, 그리고 그 지도자의 神格化같은 것에 추종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참된 友好·連帶는 특정 나라의 경험이나 지도자의 경험·사상을 日本의 友好·連帶의 운동에 강요하거나 또는 이쪽이 自主的 態度를 잃고 그에 영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自主性を 견지하여 友好·連帶를 발전시키는 것이 상대의 社會主義國에게도 대국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1974년 2월,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이 그의 논문에서 金日成의 사상을 정식으로 “金日成主義”라고 명명하였다. 金正日是 그 뒤인 1976년의 논문에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金日成主義가 밝혀 낸 새로운 革命理論, 특히 社會主義·共產主義 건설에 관한 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에 그 근원을 찾아 해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金日成의 이름을 내세운 思想이 마르크스·레닌의 이름을 내세운 사상과는 다른 ‘獨創的’ 理論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金正日이 “金日成主義”라고 명명한 것을 이어 받아 日本에서

도 安井 郁이 1974년 10월, 그때까지 金日成思想을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불렀던 것을 다시 고쳐서 “金日成主義”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安井 郁은 1976년에 金正日이 ‘金日成主義’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根源을 달리한다는 것을 받아 1977년 11월에는 “金日成主義는 현대 혁명 사상 발전의 최고 단계”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4월 맹종 집단의 季刊인 機關雜誌 『金日成主義研究』가 발간되고, 1978년 4월에는 金日成의 65세 생일을 택하여 ‘主體思想’을 日本에서 ‘구현’할 것을 지향하는 “自主의 會”라는 政治行動團體를 결성하였다. 이 일은 日本의 어느 보도 기관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는데 朝鮮勞動黨의 機關紙인 『로동신문』이 재빨리 보도하면서 그 결성도 朝鮮勞動黨의 방침에 부합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自主의 會”는 그 결성에 있어서의 선언에서 日本의 革命家에는 “主體가 세워져 있지 못하다.”고 하여 日本共產黨에 적대하여 日本共產黨에 대신할 ‘金日成主義’에 의한 지도 조직을 발족시켰던 의도를 밝혔다.

雜誌 『金日成主義研究』는 재빠르게 그 제2호(1977년 7월)에서 日本共產黨을 “부르조아 議會主義”라는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8년 4월에 北朝鮮측의 뜻을 받아 주체 사상의 국제적 보급 센터로서 “主體思想國際研究所”가 東京에 창립됨으로써 한층 더 공공연하게 되었다.

『前衛』 1979년 9월호에 발표된 ‘不破’ 書記局長(당시)의 “日本共產黨의 國際路線에 대하여”는 “自主의 會”의 결성을 日本 혁명의 자주성에 대한 공격으로서 중시하고 “日本 국민을 他國과 그 지도자에 대한 사상적 종속하에 두겠다는, 본질적으로는 아주 유해하고 위험한 것”으로서 필요한 경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金日成主義’ 맹종 집단은 “自主의 會”와

잡지 『金日成主義研究』에서의 반공적 자세를 강화하고 1980년 4월의 金日成의 68세 생일을 기하여 “日本金日成主義 研究委員會”(뒤에 日本金日成主義研究會)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朝鮮勞動黨의 기관지 『로동신문』에 의하여 즉각 보도되었다.

1983년 8월, “自主의 會”와 “日本金日成主義研究會”라는 ‘金日成主義’에 맹종하는 두 집단의 책임자를 겸한 尾上健一이 『自主의 道』에 日本共產黨과 革新統一戰線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세력을 공공연히 공격하는 論文을 발표하였다. 尾上(오가미)는 이 論文 중에서, 社會黨이 혁신의 大義를 벗어 던진 狀況下에서 革新統一을 열망하는 세력의 사람들과의 共同의 場으로서 만들어진 “革新統一懇談會”를 “共產黨만의 참가와 지도에 의한 것”으로 중상하는 한편, 社會·共明의 합의가 日美安保條約의 당면한 존속과 自衛隊의 당면한 용인 등, 反革新이라는 것은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新與黨化한 民社·公明의 兩黨까지도 “日本の 自主化를 위한 聯合”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세력에 포함시키고 自民黨은 적이나 또는 투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이 ‘尾上’의 논문은 그들이 金日成의 지시에 따라 부르짖는 ‘日本の 自主化’라는 것이 安保廢棄와 非同盟·中立 등의 정치혁신의 방향과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革新統一戰線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그 직후인 同年 9월, 尾上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創建35周年 記念行事에 초대되어 朝鮮勞動黨측의 환대를 받았다. 日本共產黨과 安保條約 폐기 등 日本의 정치혁신을 위하여 싸우는 日本의 민주세력에 반대하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집단의 言動을 자기네의 기관지인 『로동신문』같은 것에서 지지하고 격려하며 더구나 그것을 계통적·계속적으로 행하고, 또 自國에 초대하여 환대한다는 따위는 바로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민

80 日本共產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주 세력의 운동에 대한 매우 중대한 개입 간섭이며, 日本의 혁명운동과 민주운동의 自主性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다.

그 직후인 同年 10월의 아웅산 사건과 관련하여 朝總聯이 日本 共產黨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공공연히 개시하였다. 이것은 이상과 같은 朝鮮勞動黨의 10년 이상에 걸친 계통적이고 또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 간섭적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들이었다.

V. 反核, 平和的·民主的 勞動運動에 대적하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

1. 核戰爭 沮止와 核武器 廢棄를 永遠의 彼岸으로

尾上建一 등 朝鮮勞動黨에 의하여 육성되고 격려되어 있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反共的·反革新的 本質에 관해서는 日本共産黨의 두 편의 無記名論文, 1983년 12월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反共·反革新的 策동에 관하여 1984년 8월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 자체의 자기 폭로가 이미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 후의 사태는 그들이 日本共産黨에 적대하며 日本의 정치 혁신 운동에 적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日本의 反核·平和運動에도, 계급적·민주적 노동운동에도 적대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日本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잡지인 『自主의 道』는 그 18호(1985년 8월)와 19호(1985년 11월)에 ‘吉田嘉清’, 그리고 22호(1986년 8월)에 山下史, 23호(1986년 11월)에 ‘吉川勇一’과 ‘行宗一’ 등의 글을 각각 실었다. 이 雜誌는 ‘吉田嘉清’에게 “原水爆禁止世界大會가 개최되어도 이렇다할 운동이 진전되지 않는다.” 따위로 쓰게 하고 있다.

잡지 『自主의 道』의 發行處는 “東京都 豊島區 巢鴨 1-29-11, 東京文化홀 内”를 주소로 한 同誌 “編輯委員會”로 되어 있다. 巢鴨驛

가까이에 있는 이 ‘東京文化홀’이라는 것은 日本 金日成主義研究會의 사무소로서 잡지 『金日成主義研究』에 그 사진이 실린 일이 있으며, 또 그 『金日成主義研究』가 1981년 1월부터 同年 7월까지 그 발행처의 주소로 하고 있던 곳이다. 또 『自主의 道』는 “自主의 會” 幹事長인 ‘尾上建一’이 자주 ‘指導的’ 논문발표의 場으로 해 오고 있어 버젓한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기관지이다.

그런데도 이 잡지에는 아무데도 “自主의 會”와의 관계는 명기되고 있지 않으며 “日本 金日成主義研究會”와의 관계도 숨겨지고 있다. 이렇게 일반 잡지의 허울을 쓰고는 있지만 비밀의 냄새가 물씬 나는 출판물이다.

그들의 또 하나의 기관지인 『金日成主義研究』와는 달리 이 『自主의 道』에서는 “主體思想”이니 “金日成主義” 같은 용어는 일절 쓰이지 않고 있다. 그 중심적 주장은 모두 “自主”라든가 또는 “自主化” 혹은 “自主의 道”같은 용어들로 표현되어 있다. 정치·경제·사회의 문제들을 취급하고 필자도 金日成主義 信奉者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필자들을 그 論調와 함께 섞어 놓았다. 金日成主義의 길을 알맹이 그대로의 形態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自主의 道”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바꾸어 시민권을 얻어 가면서 각 분야에 침투한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이 反核·平和問題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여, 그 기관지의 紙面을 제공한 吉田嘉清 등은 日本原水協에서 탈락한 分子인 것이다. 그 후 “平和事務所”라는 이름을 내걸고 總評과 “原水禁” 등과 함께 核武器 폐기를 緊急課業으로 하는 것을 비난하고, 核武器 全面禁止도 내세우지 않는 自民黨의 前關遼 등의 ‘核雨傘’ 옹호론자들과도 손잡고 核武器 폐기를 ‘궁극적’ 과제로 하여 영원의 彼岸으로 몰아내는 등 原水爆禁止運動

無力化策動에 앞장 서 있는 인물들이다. 日本共產黨과의 관계에서도 吉田嘉清 등은 黨을 배신하고 부르조아 매스컴에 항복하여 한패가 되어 日本共產黨을 공격하는 反黨分子들이다. 吉川勇一도 對外 맹종 분자로서 黨을 배신하여 제명된 자이다.

『自主의 道』에서의 이들 分子의 등장은 朝鮮勞動黨에 의하여 육성되고 지지·격려를 받고 있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이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민주 운동을 배신한 分子들과 나란히 공공연히 日本共產黨과 日本의 평화·민주 운동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金日成主義 信奉者 자신들의 核武器 問題와 核戰爭 問題들에 대한 주장을 尾上建一이 『金日成主義研究』 36호(1986년 1월)에 “研究會 常任委員長”이라는 직책으로 쓴 “21세기를 전망하는 장대한 노선”이라는 論文에서 보기로 한다.

“日本과 世界를 자주화한다는 獨創的 方針”이라는 副題가 붙은 이 논문은 全文의 行數의 약 40%를 金日成의 발언의 인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끝에 가서 20행 정도 필자의 코멘트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것마저 金日成이 말하는 것이 “今日의 時代的 要求에 가장 합치되는 방침이며, 또 日本과 世界의 人民의 要求까지도 반영한 人民을 위한 方針이다.”고 하는 논증 없는 독단이다. 즉, 金日成이 말하기 때문에 옳다는 맹종주의 특유의 논리 구조 그대로의 코멘트로 되어 있다.

尾上建一은 이 논문에서 金日成이 1980년대 초에 “日本과 세계의 自主化”라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같은 시기인 1981년에 『自主의 道』를 발간한 것이며, 잡지 『自主의 道』는 日本을 金日成의 사상으로 지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놓게 되었다는 경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核武器 폐기와 世界大戰 沮止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金日成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全世界를 자주화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어떠한 열강이나 支配主義 勢力에도 종속하는 일 없이 복종하지 않고 확실하게 자주적인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비추어 全世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難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全世界의 自主化를 실현하지 않으면 새로운 世界大戰을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世界大戰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핵무기를 폐기시켜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결국 美蘇간의 核軍縮 교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美蘇의 核軍縮 交渉은 기대했던 만큼 전진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핵무기가 폐기되고 世界大戰이 방지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主席은 全世界를 자주화하지 않으면 世界大戰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主席은 帝國主義 국가나 大國에 종속하는 나라가 없어야 지거나, 아니면 종속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世界 각국 人民의 자각을 드높여 싸운다면 世界大戰은 방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全世界를 자주화하는 싸움인 것이다.”라고 제기하였습니다.

좀 인용이 길어졌지만, 요컨대 핵전쟁 저지도 핵무기 폐기도 ‘全世界의 自主化’ 없이는 안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잡지의 同一號에 실린 다른 署名의 논문에서

今日 日本에 있어서는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담보로서 自主化는 절박한 과제로 되어 있으며, 美國과의 관계에서 自主化가

된다면 핵전쟁을 저지하여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라고 쓰고 있다. 또 尾上建一은 그 후의 同誌 38호(1986년 7월)에서도

전쟁을 저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투쟁은 바로 세계의 自主化를 지향하는 투쟁의 일환이다.

라고 논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세계와 日本의 ‘自主化’란 세계와 日本을 金日成 思想의 지도하에 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尾上健一’ 등은 1974년에 “自主의 숲”을 결성했을 때 그 결성 선언에서 ‘自主’란 “주체”라는 朝鮮語를 日本語로 번역했을 때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主體思想은 日本의 自主化路線의 思想的 기초이다.”라는 것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日本의 自主化” “세계의 自主化”이니 하는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 것은 朝鮮 이외에서는 그들 金日成主義 信奉者들뿐이다. 尾上健一은 앞에서도 인용한 논문 “21세기를 전망하는 장대한 노선” 속에서 분명히 “日本과 세계를 자주화하는 방침”은 “金日成 主席에 의하여 밝혀진” 방침이라고 썼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自主化”란 金日成의 방침의 실행이고, 日本과 세계가 金日成思想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主體思想化’에 지나지 않는다.

全世界의 自主化 없이는, 즉 全世界의 主體思想化 없이는 핵전쟁의 저지도 핵무기의 폐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보면, 핵전쟁 저지와 핵무기 폐기보다도 金日成思想化가 우선이라는 사

고 방식이며, 이야말로 金日成의 指導思想을 全世界의 指導思想으로 삼는 것을 第一義的 目的으로 하는 실로 가공할 패권주의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百步를 양보하여 그들이 말하는 ‘自主化’의 참된 의미에 눈을 감고 그것을 帝國主義에의 종속으로부터의 탈피와 民族自決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해도, 핵전쟁 저지와 핵무기 폐기는 全世界에서 帝國主義的 · 霸權主義的 政策이 패배하여 民族自決이 온 世界에서 실현될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주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본래 어느 민족도 자기의 운명은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民族自決의 원칙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것은 世界平和와 社會進歩의 기초로서 핵전쟁 저지와 핵무기 폐기의 과제와 함께 今日 國際連帶의 두 가지의 중요한 支柱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핵전쟁 저지와 핵무기 폐기의 과제는 全人類의 死活의 문제로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는 정치 · 사상 ·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세계의 평화 · 민주 세력들을 가장 폭넓게 결집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코 反帝 · 反霸權主義의 투쟁이나 民族自決의 투쟁에 종속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투쟁이다.

핵전쟁 저지와 핵무기의 전면 금지 · 폐기와 이를 위한 國際協定 실현을 지향하여 政治體制나 思想 · 信條 · 宗教 등을 초월한 광대한 統一戰線을 결성하여 핵무기에 고집하는 세력을 고립시키는 일, 그것이今日の 人類 전체 앞에 제기되어 있는 긴급하고도 死活이 걸린 과제인 것이다. 尾上 등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주장은 이 인류의 긴급한 死活의 과제를 세계와 日本의 ‘自主化’이니 하는 金日成의 호령에 대한 예속으로 바꾸어 놓고는 사실상 이

과제의 실현을 영원의 彼岸으로 내모는 것으로, 이야말로 原水爆禁止運動의 無力化策動의 尖兵으로 탈락한 吉田嘉清 등에게 공명한 소치였던 것이다.

1984년 12월, 핵전쟁 저지와 核武器 전면 禁止·廢棄와 그 실현을 위한 國際協定 체결을 긴급한 死活의 과제로 한 日·蘇 양 共産黨의 共同聲明은 그 후의 國際政治와 世界의 平和運動의 중심 과제로 핵무기 폐기의 과제를 자리잡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다해 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尾上 健一’ 일파는 그 기관지 『自主의 道』(1985년 5월호)의 편집위원회의 논문에서 이 共同聲明을 “그 내용에는 구체성이 없고 政治宣傳의 目的이 짙은 것 같습니다.”이니 하며 조소하고 있었다. 人類에게 緊急死活의 과제인 核戰爭 沮止와 핵무기 폐기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世界의 自主化”라는 金日成 지시의 실행에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2. 파탄된 ‘自主化’論과 右傾化에의 迎合

원래 ‘自主化’라는 것의 기초에 있는 ‘主體思想’이라는 것은 日本共産黨이 이때까지의 金日成主義 信奉者 批判論文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스스로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는 다른 思想體系”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科學的 社會主義의 唯物論을 “人間을 下等動物의 水準으로 끌어 내리는 것”이니 하며 왜곡하여 부정하는 觀念論 哲學에서 있다. 尾上健一 일파가 그 기관지에서 전개하고 있는 “自主化”에 대한 論理에 따르면, “社會의 運動은

……主體의 作用에 따라 目的意識의 으로 추진되며” 民族自決도 自主獨立도 모두가 “인간 본위의 自主思想,” 즉 인간의 “本性的의 要求인 自主性”이라는 것으로 귀착된다. 여기에는 인류가 帝國主義的·霸權主義的 支配와의 피로 얼룩진 투쟁의 실천 속에서 쌓아 올려 世界史的 무게와 地球的 넓이를 가진 不動의 이론으로 되어 있는 民族自決의 개념을 階級鬭爭 없는 인간의 “本性的의 要求인 自主性”이라는 觀念으로 귀착시켜 해석한다는 점에 그들의 觀念論의 極致가 잘 나타나 있다.

反核平和의 戰線에서의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立場은 이미 본 바와 같이 核武器 高집 세력에 대한 투쟁도 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帝國主義에 대해서도 투쟁하지 않는 것인데, 이 鬭爭 回避의 機會主義, 右傾轉落의 노선은 勞動戰線에서의 주장에도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의 주장은 日本의 勞動運動을 戰時中의 反共, 勞使一體·戰爭協力の ‘産業報國會’로 바껴 버리는 全民勞協을 母體로 한 ‘勞戰統一’의 지지인 것이다.

尾上健一 일파 등은 日本의 勞動戰線內에서의 右翼的 再編에 대하여 民主勢力 내부의 分열과 獨善主義를 기반으로 하여 左派의 選別이 용인되고 그 결과 全民勞協 결성으로 나가게 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들은 이 再編에 대한 反動勢力측으로부터의 의도에도 언급하지만 이와 한쌍인 것으로서 階級的·民主的 勞動運動을 지향하는 潮流를 들어 이것을 分열로 보는 한편 獨善主義로 간주하여 今日의 再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한다. 즉, 右도 ‘左’도 다 나쁘다는 말이며, 사실상 勞使 일체화에 대한 右翼的 再編에의 反動的 右派勢力의 움직임을 면죄해 주고 있다. 여기서 尾上健一 일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勞戰統一에 대한 現實的 對應이란 먼저 全民勞協의 올바른 결성과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前向的 姿勢를 보이는 것이다(『自主의 道』 7호, 1982년 1월).

勞動戰線의 右翼再編을 勞動者와 國民의 이익에 반하는 위험한 실태로서 폭로하면서 이를 단호히 반대하여 資本으로부터의 독립과 政黨으로부터의 독립 및 일반적 요구에 기초한 행동의 통일이라는 3원칙에 의한 내셔널 센터의 확립을 지향하는 運動도 尾上健一에게는 “階級路線이라는 표현에서 全民勞協은 右, 總評도 右, 社會黨도 右傾化되었다 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배제해 나가는 경향”(『自主의 道』 19호, 1985년 11월, 尾上의 논문)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勞動者와 國民 각층의 要求 실현을 위하여 싸우는 統一組合懇談會를 섹트라 하여 공격하는 勞使協調의 右翼社民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여 교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尾上 일파는 한편으로는 다른 論文에서 中曾根 내각의 政策을 對美 종속이니 大企業 본위다 하여 비판하고 있으면서 그들 자신이 다른 한편으로는 安保條約을 용인하며 中曾根首相과 나란히 “建國記念式典”에 참가하여 “天皇萬歲”의 先唱도 하는 同盟指導部가 추진하여 獨占資本의 賃金抑制策에 호응하는 全民勞協의 노선에 영합하고 있다. 이 尾上 일파의 노선이 金日成의 “自民黨과 함께 日本의 自主化를 위하여 일어서라.”라는 지시에 맹종하는 自民黨 美化 및 自民黨과의 聯合路線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科學的 社會主義를 적대시하는 觀念論에 서서 外國指導者의 말 한마디에 교조적으로 맹종하는 尾上 일파의 “日本의 自主化論”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형태로 日本의 현실에 적응시켜 논하려 한다면 지리멸렬에 빠질 것이다.

1985년 11월 『赤旗』의 評論特輯版에서 筆者는 그들의 “日本の 自主化論”이 日本을 主體思想의 지배하에 두려는 것이며, 自民黨과 反共野黨의 연합과의 연합 및 日本帝國主義의 자립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에 대한 反論 비슷한 시도가 그들의 잡지에 나왔지만, 지금 와서 새삼 “日本帝國主義의 自立을 주장한 일은 없습니다.” 따위로 입을 싹 닦고 시치미를 떼려는 것이었다. 尾上健一은 같은 잡지에서 金日成의 “日本이 어떤 체도하에 있건 자주화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에 맹종하여, “自主化”는 “日本帝國主義를 타도하는 것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다.” 또 “日本은 帝國主義지만 帝國主義 諸國 民衆의 政治課題는 自國을 자주화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었다. 같은 잡지에 “美帝國主義로부터 자립하여 自主의 길을 걷는다.”고까지 쓴 論文(『自主의 道』 15호, 1984년 11월)도 있었다. 지금 새삼스럽게 입을 다문다 해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그들의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日本의 현실과 戰後 최악의 中曾根의 反動政治와 國民과의 피할 수 없는 矛盾의 深化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일부의 論者와 尾上 등의 論說과의 사이에 ‘日本の 自主化’를 둘러싼 알력이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면 『金日成主義研究』 38호(1986년 7월)에는 日本의 自主性を 확립하기 위해서는 “國內에서의 反帝·反獨占의 鬭爭, 勤勞人民大衆의 연대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 勤勞人民에 의한 政權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自民黨과의 연합을 지향하는 尾上 등을 비판하는 것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論者는 다른 곳에서 “日本에 있어서의 自主의 확립은 제3세계의 自主化 노선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여 帝國主義自立待望論을 비판하고 있다. 이들 論者가 ‘日本の 自主化’라는 觀念論과 대외 맹종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지는 않으나 그들 주장의 혼란 자체

가 “日本の 自主化論”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파탄해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社會黨의 지도부가 金日成이 직접 제시한 ‘日本の 自主化’라는 관념론적 노선에 추종함으로써 自民黨과의 연합을 지향하는 右傾化 노선에 스스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84년 9월 北朝鮮을 방문한 社會黨의 石橋 위원장(당시)은 金日成으로부터 自民黨까지 포함하여 “日本の 自主化를 위하여 일어서라”는 호소를 받았을 때 이에 반대도 비판도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에 北朝鮮을 방문한 社會黨의 田邊 서기장은 韓國의 新韓民主黨과 접촉함에 있어서 事前에 金日成의 양해를 구한다는 非自主性を 보였다. 이러한 ‘諒解’를 얻은 다음 石橋 위원장은 10월에 韓國을 방문할 것을 결정하고, 이 訪韓이 全斗煥政權에 대한 認知를 뜻한다는 것도 언명하였다. 이 訪韓 계획은 실제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 실현을 보지 못했지만, 日本 外務省으로부터는 日本 정부의 外交政策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환영받았다. 그 위에도 土井 위원장은 石橋 위원장의 노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對韓政策의 再檢討를 발언하고 있었다. 이러한 全斗煥政權을 인지하는 社會黨의 경향은 金日成의 自民黨을 포함한 日本의 全政黨의 ‘自主化’ 연합을 호소한다는, 즉 自民黨과의 연합과 右傾化 노선에 대한 영합 자세에 의하여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社會黨은 中國共產黨의 “세 가지 世界論”에 기초한 日美軍事同盟과 自衛隊 용인 노선을 그 對外 추종성의 틀으로 강요당하여 그 右傾化를 촉진당하게 된 것이다. 그 경위는 佐佐木 陸海의 논문 “‘文革’ 이후의 中國共產黨 對外路線의 本質”에서 상세히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다.

土井 위원장은 최근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방문한 데서

그의 목적이 中曾根 내각의 외교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日本社會黨은 朝鮮勞動黨의 노선에도 추종함으로써 右傾化가 촉진되어 自民黨의 對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對韓國政策의 보완적 역할을 자청하여 걸머지고 있는 것이다.

3. 干涉의 道具로서의 金日成主義 信奉者集團

1986년에 朝鮮勞動黨의 『國際生活』 3월호가 발표한 日本共產黨 공격의 논문은 내용에서 日本共產黨 지도부를 모두 “日本共產黨의 ‘指導者’들”이라고 괄호 쳐서 지칭하였다. 그 題名에서는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소설이 그린 中世 기사 이야기의 세계를 현실로 망상하여 奇行을 되풀이하는 동키호테에 비유하여 日本共產黨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論文은 그 마지막을

日本の 참된 共產主義者들이 자기네의 黨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事態를 빨리 바로 잡아 자기들에게 부과된 歷史的 革命을 자랑스럽게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고 맺어 日本共產黨 지도부의 타도를 공공연하게 호소하였다. “참된 共產主義者”란 말하자면 간섭자가 자기에게 추종하여 相對黨을 배신한 反黨分子나, 反黨分子가 될 것을 기대하는 분자들을 호칭할 때 늘 쓰는 常用語인 것이다. 朝鮮勞動黨이 자기들에게 추종할 것을 기대하는 분자들에게 호소한 “자기 앞에 부과된 歷史的 課業”이란 金日成이 日本에 강요하는 “日本の 自主

化”라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차례 인용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1984년 9월의 日本社會黨 대표단 환영 연설에서

日本 각계 각층의 人民과 自由民主黨을 비롯하여 각당 각과도 日本을 자주화하는 신성한 위업에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간접적 발언은 잡지 『世界』에도 있었다. “自主化”란 金日成이 말하기 시작한 독특한 노선으로, 그것은 ‘主體思想化’를 말하며, 정책적으로는 安保條約容認의 社會·公明·民社의 합의를 긍정하며, 自民黨政權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즉 右傾化 노선에 대한 영합이라는 것은 이미 보아온 바와 같다. 朝鮮勞動黨은 이러한 金日成의 호령에 복종하지 않는 日本共産黨 지도부의 타도를 호소한 것이다.

朝鮮勞動黨에 맹종하는 尾常 일파 등 日本의 金日成主義 신봉자들은 최근 빈번히 ‘日本의 自主化’를 위하여, 朝鮮勞動黨에 추종하지 않는 日本共産黨 指導部 타도 후의 金日成의 ‘黨’ 만들기를 망상하는 論文을 그 雜誌에 쓰고 있다. 本稿의 처음에서 인용한 『自主의 道』 1986년 11월호의 “日本을 자주화하기 위한 새로운 運動”이라는 論文도 그 하나이다. 이 論文은 “지금의 거의 모든 運動들은 낡은 運動”이며, ‘日本의 自主化’를 위한 “自主의 會”의 운동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최초”의 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낡은’ 운동으로서 자칭 “마르크스주의 정당과 노동자 계급의 政黨”을 들고 있기 때문에 日本共産黨을 지칭하여 “낡은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朝鮮勞動黨이 日本共産黨의 指導部 타도를 호소한 직후에 나온 『金日成主義研究』 1986년 7월호의 “黨의 理論과 그 活動”이라는 論文은 金日成이 中國 東北地區에서의 抗日 빨치산 鬪爭中

에 쌓은 ‘黨’이야말로 레닌 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現時代의 要求에 바로 응한 올바른 黨 건설의 理論”을 쌓는 것이라는 金日成과 金正日이 반복하고 있는 독특한 “黨建設論”을 모방한 것이었다. 中國 東北地區에서의 金日成의 抗日武裝鬭爭路線이라는 것에 ‘現代’의 ‘새로운 黨’이라는 보편성을 부여하는 이 ‘理論’에는 한 줄의 과학성도 없다. 그뿐 아니라 他國의 黨에 자기만이 주장하는 그 ‘정당함’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霸權主義의 아주 위험한 내용이 있는 것이다.

『金日成主義研究』의 이 論文은, “우리들은 지금은 겨우 배우기 시작하였지만, 이 金日成의 ‘理論’에 이끌리어 선구자로서의 自覺을 가지고 장대한 鬭爭의 가장 기본적인 승리인 理論誌의 普及과 會員의 擴大를 하여 日本의 自主偉業에서 승리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日本共產黨의 指導部를 타도하고 그에 대체될 金日成主義의 別黨을 日本에서 만들라는 그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다음과 같이 ‘實行’에 옮기고 있다.

“自主의 會”등을 자칭하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日本共產黨에 공격을 공공연히 해오고 있지만, 日本共產黨이 이에 반격을 가하자, “우리는 다만 학습 서클이다. 소박한 연구 서클이다. 政治團體로 보는 것은 事實과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등 변명하면서 批判을 피하려고 힘써 왔다. 그러나 1982년에 “自主의 會”는 ‘政治研究團體’로 재편되었다고 하면서 그때까지의 ‘서클적’ 위장을 벗어 던지고 政治團體로서의 성격을 공공연화하였다.

이 경위를 尾上健一은 1986년 1월의 『金日成主義研究』의 論文에서 쓰고 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글의 일부를 읽기만 해도 尾上健一이라는 인물이 日本의 진로를 金日成이라는 外國의 指導者에게 완전히 맡겨 버린, 그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의 맹종 분

자인가를 잘 알 수 있다.

日本과 世界를 자주화한다는 방침은 日本과 世界 各國에서 主體思想을 自國의 實情에 따라 적용한다는 活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前提로 하여 金日成 주석께서 명시한 독창적인 방침입니다.

日本과 世界를 자주화한다는 방침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밝혀진 것은 日本과 世界에서 主體思想이 학습되기 시작한 지 약 10년이 지난 1980년대 초에 있어서였습니다.

……1981년 5월……運動理論誌『自主의 道』가 창간되었습니다.

다음해인 1982년 日本의 당면 政治的 進路는 日本을 자주화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노선이 제창되고 그 해의 5월에 “自主의 會”가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尾上健一이 “日本의 당면한 政治的 進路”로서 ‘日本을 자주화’한다는 ‘새로운 노선’이 1982년에 제창되었다는 것은 同年 4월, 70세의 생일을 맞이한 金日成이 黨 中央委와 最高人民會議(國會)의 合同會議에서 행한 演說, “全社會를 주체 사상화하기 위한 人民政權의 課業”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金日成은 “全社會의 主體思想化”를 國內問題에만 국한하지 않고 “現時代는 自主性的의 시대입니다.”라고 하면서 “全世界的 自主化”를 제창하였다.

그 해에 尾上健一은 金日成을 만났다. 여기서 尾上은 “日本이 어떤 制度下에 있건 자주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社會主義制度가 되길 바라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日本이 자주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金日成主義研究』 24호 (1983년 3월호), 日本金日成主義研究會 제6차 全國委員會에서의 基調報告).

尾上健一은 이 1982년 2월에 그때까지의 主體思想研究團體의 연합이었던 “自主의 會”를 해산하고 3개월 뒤인 5월, ‘새로운 政治研究團體’로서의 “自主의 會”를 다시 설립했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조직 개편은 金日成이 내놓은 ‘새로운 노선’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尾上健一은 2년 동안에 걸쳐 이 改編을 機關誌에도 쓰지 않고 비밀로 붙이고 있었다. 1984년에 이르러 비밀로 해온 이유를 “反動은 우리들의 활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운운하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해에 金日成이 내놓은 ‘새로운 노선’에 즉각 추종하여 ‘日本의 自主化’를 위한 政治團體를 만들었다는 지나친 맹종이 日本國民들 앞에 금방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尾上 일파 등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은 金日成의 ‘日本의 自主化’라는 방침을 받들어 規約에 ‘日本의 自主化’를 그 활동 목적으로 내세운 “自主의 會”라는 政治團體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그 경위는 “自主의 會”라는 것이 日本의 革命運動과 民主運動을 金日成의 指導思想의 支配下에 두는 朝鮮勞動黨의 霸權主義的 干涉의 道具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自主의 會”라는 것이 日本 歷史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된 다른 政黨·政派들과 同列로 논의될 수 있는 政治勢力 따위는 아니라는 것도 그 경위 자체가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中國 맹종·소련 맹종의 反黨分子·反黨集團과 그 本質에 있어서 다를 바 없는 霸權主義的 干涉의 道具인 것이다.

朝鮮勞動黨에의 추종을 거부하는 日本共產黨의 指導部 전복을 부추기고 있는 朝鮮勞動黨에 絕對的 忠誠을 맹세하여 日本共產

黨을 전복하고 대신 金日成의 黨을 만드는 일에 자기들의 存在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는 金日成主義 信奉者들의 性格과 役割은 다른 對外 맹종의 反黨分子·反黨集團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 中國 맹종의 反黨集團인 大隈 일파 등 다른 對外盲從集團과 마찬가지로 朝鮮勞動黨 맹종의 金日成主義 信奉者의 集團은 그 役員의 構成도 事務所의 所在處도 공표할 수 없었다. 그들은 『自主의 道』가 자기들의 機關誌라는 것도 國民에게 밝힐 수 없었다. 한 주먹만한 陰謀的 集團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매달릴 곳은 오로지 朝鮮勞動黨뿐이다. 日本의 新聞 등에서는 취급받은 적도 없는 尾上 일파의 機關誌 各號의 내용은 朝鮮勞動黨의 機關紙인 『로동신문』의 紙上에서 계통적으로 선전되고 높이 평가되어 오고 있다. 작년의 朝鮮勞動黨의 잡지 『國際生活』의 日本共產黨 攻擊論文은 日本共產黨이 한 尾上健一 일파의 觀念論批判에 대하여 ‘反論’을 스스로 청해서 대신해 가할 정도로 一體性を 보여 주었다.

“自主”나 “思想研究” 또는 “日朝友好”와 “朝鮮問題研究”나 하여 아무리 비슷한 분장을 한 간판을 내걸어도 金日成主義 信奉者集團이 朝鮮勞動黨에 의한 日本共產黨과 日本에 대한 霸權主義的 干涉의 道具라는 추한 본질은 명백하다.

그들은 전혀 보잘것없는 한 줌의 集團이긴 하지만 隣國인 社會主義國의 政權黨인 朝鮮勞動黨의 간섭의 道具이며 또 朝總聯이라는 日本에서 霸權主義를 추진하는 데 지극히 유리한 組織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在日公民의 組織을 가지고 있는 朝鮮勞動黨의 干涉의 앞잡이다. 더구나 朝鮮勞動黨은 『國際生活』의 日本共產黨 攻擊論文에서 공공연하게 日本共產黨 指導部의 전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호응하여 日本의 金日成主義 信奉者集團은 金日成主義의 政治團體를 구성하고 있다. 外國의 黨이

他國에 자기들의 指導路線을 강요하고는 이에 따르지 않는 相對黨의 指導部 진복을 호소하고, 자기들에게 추종하는 集團을 육성·지원하는 등의 난폭한 霸權主義的 干涉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은 日本共產黨으로서의 前衛黨으로서의 存立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정당방위이다. 또 日本 국민이 그 平和·民主主義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敵인 自民黨과 이를 도와고 있는 反共野黨과의 연합을 호소하여 日本 국민의 투쟁을 방해하는 朝鮮勞動黨의 간섭에 맞서 싸우는 것은 日本의 民主勢力으로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와 같은 간섭에 맹종하는 金日成主義 信奉者의 策動을 미친 짓이라 하여 경시한다거나 자기들에게 관계없는 일이라 하여 방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VI. 참된 日朝友好運動의 立場을 견지하며

1970년대 초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朝鮮勞動黨과 朝總聯에 의한 간섭이 특히 日本의 民主運動 각 분야와 日朝友好運動에 대하여 행해져 온 것을 보아 왔다. 그러나 그러한 동안 수년 전까지만 해도 日本共產黨과 朝鮮勞動黨과의 관계, 그리고 日本의 民主團體들과 朝總聯 및 [北]朝鮮系 民主團體와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것은 北朝鮮측으로부터의 사실상의 간섭과 이에 추종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적절한 형태로 엄한 비판을 가하고 경고를 보내면서도, 日本共產黨측에서 朝鮮勞動黨의 이름을 열거해 가면서 비판 하지는 않는다는 절도 있는 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간의 경위가 밝혀주고 있듯이 日本共產黨과 朝鮮勞動黨과의 관계 단절은 1983년의 랑군 아웅산 사건에서 朝鮮勞動黨 指導下에 있는 朝總聯이 사실상 日本共產黨에 대해 이름을 들어 패권주의적 공격을 하고 이에 잇달아 1984년의 日本漁船 총격 사건에서 朝鮮勞動黨 기관지 『로동신문』이 日本共產黨에 대해 야만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日朝協會에 관하여 말한다면, 同協會 본부는 朝總聯과의 友好關係가 단절된 경위를 그 文書 “日朝友好運動의 自主的 發展을 위하여”(1986년 1월)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日朝協會와 朝總聯과의 사이에 각각의 기관지를 통하여 양 代表者의 ‘年頭人事’를 교환하는 것이 數年來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協會 본부는 [1983년] 12월 23일, “今年은 형편에 따라 사양하겠다.”는 뜻을 朝總聯으로부터 연락받았다. 協會 본부는 日朝友好連帶運動에 있어서의 相互主義의 입장에서 이미 朝鮮時報社에 보내 놓았던 會長 名의 ‘年頭 祝賀人事’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事態는 日本共產黨측으로부터의 朝鮮勞動黨에 대한 간섭이나 선제공격에 의하여 발단된 것이 아니었다. 日朝協會로부터 朝總聯이나 北朝鮮側 단체에 대한 非友好的 措置가 먼저 가해진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1970년대부터 음으로 양으로 가해져 온 北朝鮮측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하여 공공연하게 비판을 삼가해 온 것은 日本측이었다. 事態는 朝鮮勞動黨이 日本共產黨 지도부의 전복을 공공연히 호소하기에까지 발전하였다. 日朝協會는 또 朝鮮勞動黨에 의하여 육성되고 지지·격려되고 있는 盲從集團 분자와 金日成主義 신봉자들에 의해서 난폭한 분열과 무장 공격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그 때문에 日朝協會는 自國의 民主運動에 난폭한 간섭을 하고 있는 나라의 人民과의 友好運動이라는 복잡한 시련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날 日蘇協會가 걸었던 길이었으며, 그리고 현재도 日中友好協會가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하다. 朝鮮勞動黨의 간섭에 추종하여 日朝友好運動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政策支持運動으로 만들고 만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日朝協會에 대하여 “상대도 없는 友好運動을 몽상하는 者”라는 악의에 찬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友好의 相對國인 社會主義國이 社會主義國에 있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면서 난폭한 간섭으로 나오고 있을 때,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 영합하고 비굴하게 추종하는 것과 과오는 분명히 비판하고 간섭을 거부하여 自國民의 運動自主性を 견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참된 友好인가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어느 쪽이 사리에 맞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自國民에 대한 책임을 관철시키고 있는가도 분명한 일이다.

1972년 3월 11일 『赤旗』에 발표한 논문 “國際友好·連帶運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는 이미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었다.

참된 友好·連帶는 특정의 나라에 있어서의 경험이나 指導者의 理論 또는 思想을 日本의 友好·連帶의 運動에 강요하거나 혹은 이쪽이 자주적 태도를 잃고 그에 영합하거나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리고 自主性を 견지하여 友好·連帶를 발전시키는 것이 相對의 社會主義國측에도 대국적 이익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두어야 합니다.

1986년에 일부 정치가와 학자들이 가담하여 “對中·蘇外交 作戰 功勞者 顯彰祭”라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이 顯彰(밝게 나타나거나 나타냄)의 對象과 企劃者 중에는, 中國과 소련과의 國交를 오히려 지연시켜 온 政治勢力의 代表와 소련의 部分核停止條約 지지의 강요에 추종하고, 또 中國의 ‘文革’ 찬양에 영합했던 對外 맹종 분자들이 이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 그때 『赤旗』는 “소련·中國과의 참된 友好란 무엇인가.”라는 주장을 싣고 이를 비판하였다. 이 주장은 소련이나 中國으로부터의 간섭의 앞잡이가 되어 등장한 分裂組織이 소련과 中國의 친구는커녕 참된 友好의 背信者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社會主義國으로부터의 霸權主義的 과오에 부딪혔을 때 그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야말로 社會主義의 참된 명예를 지키는 것이며, 社會主義國과의 참된 友好와 連帶의 정신 바로 그것입니다.

分裂·干涉에 끝까지 싸워 日本人民의 입장을 견지하고, 相對國과의 人的 交流가 단절당하거나 제한받는 事態에도 國際連帶와 自主性을 통일하여 相對國 人民과의 참된 友好와 연대의 運動을 今日까지 끊임없이 이어온 日蘇協會와 日中友好協會야말로 참된 國際友好連帶團體의 이름에 價値가 있는 것입니다.

이 主張의 입장은 今日 日朝協會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지난 5월 23일과 24일에 열린 日朝協會 제29차 定期全國大會는

日朝友好連帶運動을 (北)朝鮮의 政策支持運動으로 바꾸려는 干涉과 策動이 한층 더 노골화되어 있는 狀況 하에서 이들 부당한 간섭과 책동에 반대함과 동시에 日本 國民의 요구를 기초로 하여 國際友好運動의 원칙(自主·平等·內部問題不干涉)에 입각한 자주적인 운동으로서 전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政府의 (北)朝鮮 政策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日朝 양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課業을 위하여 투쟁하며, 朝鮮의 自主的·平和的 統一과 在日朝鮮人의 권리 옹호, 자주적인 日朝友好連帶運動의 강화를 위하여 몰두하는 방침을 선택하였다. 이 방침 아래에 今日 적지 않은 社會黨員과 社會당 支持者들도 日朝協會의 役員 또는 會員으로서 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 두고자 한다.

朝鮮勞動黨의 霸權主義에 대한 鬭爭은 공공연하게 시작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事態를 알려서 干涉과의 싸움을 각 戰線에 넓혀 나가는 努力은 아직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朝鮮측의 간섭도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어 해결에는 많은 기간에 걸친 끈질긴 원칙적인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립되어야 할 양국 人民간의 관계는 어느쪽에서건 對等과 平等이 없는 종속과 추종, 內部問題에의 간섭 등을 용인한 관계에서도 절대로 안될 것이다.

對等·平等·自主·內部問題不干涉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관계가 확립됨으로써만 역사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으로도 모든 점에서 日本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朝鮮(北)人民과의, 그리고 지난 날 日本의 가혹한 天皇制軍國主義의 침략과 싸워 온 朝鮮人民과의, 나아가서는 현재 日·美·韓 군사 일체화 아래서 다같이 核戰爭의 위험에 놓여 있는 朝鮮人民과의 부동의 友好·連帶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양국 人民의 歷史的 責務이자 길이다. 이 責務를 다함으로써 쥐게 되는 勝利는 결코 일방만의 勝利가 아니다. 그것은 양국 人民의 공통된 勝利인 것이다.

日本共産黨의
北韓政策路線 批判

저 자 : 和 田 正 名

발 행 : 調査研究室 第二研究官室

인 쇄 : 自 然 文 化 社

1988년 1월 25일 인쇄

1988년 1월 30일 발행
